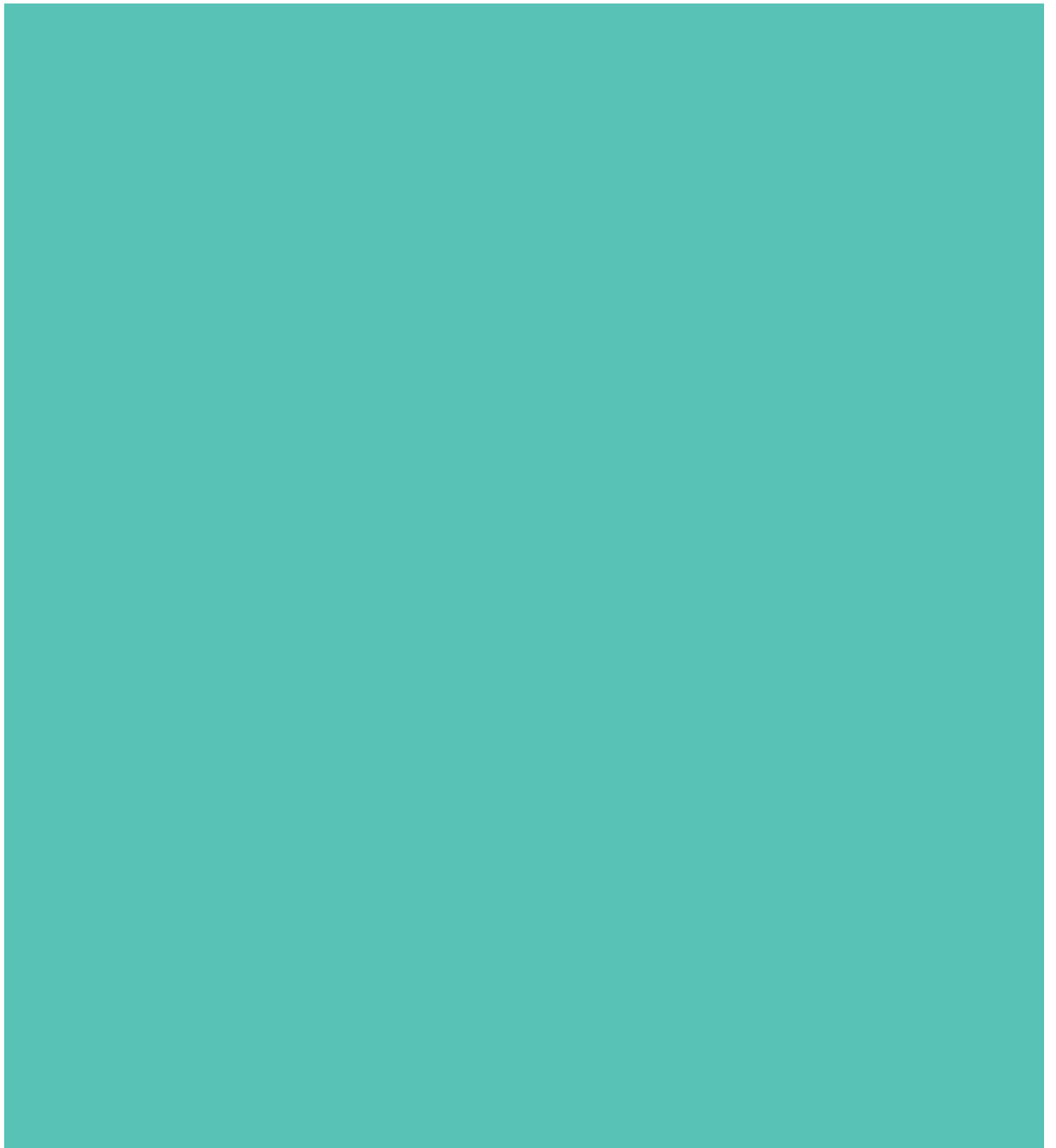




2014 우리 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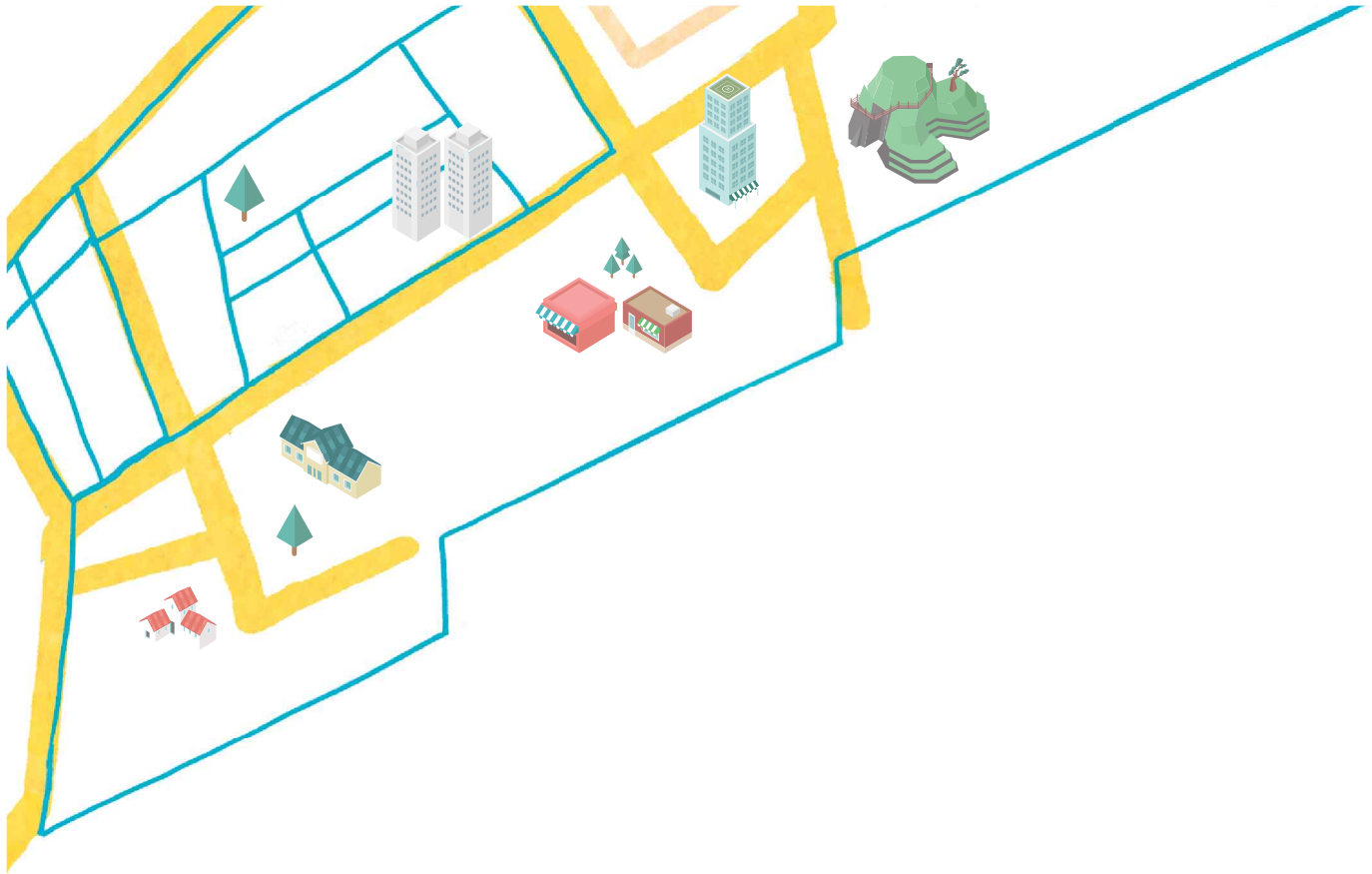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2014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마을커뮤니티 사업 프로젝트북

발행인	정은숙
편집인	김보성
기획총괄	이영진
기획진행	이종필, 박은진
주민작가	김경옥(단대동 마을센터), 박지선(마을커뮤니티 따숨), 이은지(꿈광리 마을센터), 전인옥(섬마을 사랑하는 모임)
디자인/인쇄	청정마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발행일	2015. 02.

© 성남문화재단

2014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2014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단대동

- 1. 마을 이야기 8
- 2. 마수걸이 10
- 3. 고삿이 시골시골 15
- 4. 라온하제 52
- 5. 갈무리 55

금광동

- 1. 우리동네 알아보기 108
- 2. 우리들의 프로그램 111
- 3. 꿈광리마을이야기 121
- 4. 감사의 글 125

태평동

- 1. 꿈을 펼쳐라 66
- 2. 마을 만들기 70
- 3. 숲 이야기 74
- 4. 재미있는 놀이 85
- 5. 마을 만들기 95

도촌동

- 1. 섬마을 알아보기 132
- 2. 마을 이야기 135
- 3. 섬마을 축제 141
- 4. 가족 문학 기행 147
- 5. 감사의 글 150





단대동

1. 마을이야기	8
2. 마수겔이	10
3. 고삿이 시끌시끌	15
4. 라온하제	52
5. 갈무리	55

마을이야기



논골 이야기, '논골'의 유래와 역사



조선시대에 광주군 세촌면 단대동 이었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은행정·논골·금광리를 병합하여 '단대리'라하고 광주군 중부면에 편입되었으며, 1971년 7월1일 광주군 성남출장소 단대지소 관할이었음.

1973년 성남시의 승격에 따라 논골,금광리지역 등을 단대동으로 개칭하고 으능쟁이는 은행동으로 편입되었으며, 단대동은 다시 1977년 10월 지금의 중앙로(단대천)를 경계로 북쪽의 단대1동과 남쪽의 단대2동으로 분동되었고, 단대2동은 1980년 9월 중원구 광명로를 경계로 단대2·3동으로 분동되어 영되다가 1989년 5월 금광1·2동으로 개칭되어 현재 중원구에 편입되어 있음.

단대1동은 1983년 10월 1일 지금의 단대공원 정상을 경계로 남쪽의 단대1동과 북쪽의 단대4동으로 다시 분동되었다가 1989년 5월 1일 수정구의 편제에 따라 단대1동은 단대동으로 단대4동은 산성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洞名의 유래는 '탄리'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 고개의 흙이 붉은 데서 단대동이라 하였다 하나 조선조 때 이미 사용되었던 지명이다.

**'논골'은 이 단대동에 속해있는 작은 마을로
유난히 논이 많아서 '논골'이라 불리워 졌다고 한다.
경사진 동네에 다량이 논이 많았던 우리 '논골'은 이렇게 유래되어진다.**

현재 '88번, 88-1번, 9번등이 다니는 우리 동네 버스길이 예전 '단대천'이라 불리었고 이 개천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양쪽의 모든 동네가 논골이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의 '논골'과 양지동이 이에 속한다. 아직도 시내 버스 9번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가고 오는 길에 버스에서 나오는 안내를 들어 보면 "이 번 정류장은 '웃 논골'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온다. 짐작해 보건에 우리 논골은 아랫 논골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 논골 마을 만들기의 오늘과 미래



단대동 논골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년 2월 논골 작은 도서관을 위탁을 받으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논골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지만 논골 마을 주민들에게는 문학의 공간으로 문화의 공간으로 작은 사랑방으로 주민들에게 작은 숨을 쉴 수 있는 행복한 논골 마을만의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마을 활동가인 주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운영 하면서 도서관은 논골 마을 만들기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논골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고 잠깐 쉴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작은도서관 건립운동을 시작으로 마을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벽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몇몇 활동가들이 시작한 마을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논골 만의 특성을 살려 마을학교를 환경과 접목하여 논골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인들을 위한 마을주민역량 강화사업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골목길 생태학교를 현재까지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재단 사업인 마을커뮤니티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논골 마을 만들기Ⅱ사업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학교, 성남마을공동체 - 주민up마을학교, 문화로 논골 마을 학교를 진행 하였으며 마을미디어 사업으로 마을신문을 12월에 창간하여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사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2015년도에 논골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신문 창간과 함께 성남시 문화재단과 함께 준비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새로운 마을사업에 도전하려 한다.



문화마을사업은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조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논골 마을만의 문화를 만들어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논골'은 문화마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논골 마을만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마수걸이

① 이야기가 있는 논골마을

꿈! 이루어지다. - 도서관 개관

2014년 03월 18일

논골 모든 주민의 꿈인 '논골작은도서관'이 개관식을 가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 주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서관 준공이 결정나기를 기다리고, 공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이 언제 끝이날까 싶었다.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지나가는 길에 한 번, 일부러 지나는 척 하면서 한 번, 돌아보기를 수십 차례, 유독 나만 그런 것은 아닌 가보다. 공사장 인부들의 말을 들으니 여기는 “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시는 걸 보니 말이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시간은 가는데 2013년 12월 말에 끝난다고 한 공사가 2014년 1월을 넘겨서도 하고 있으니 속이 탔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간다는 것이 세월이 아니었던가! 속은 타서 새까맣게 되었을 망정....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 되고 개관하는 날이 되었다.

‘성문 밖 학교’친구들의 멋들어진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에게 도서관 개관을 알리고 모여드는 인파로 도서관 안과 밖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축제도 이런 축제가 없다 싶었다. 테잎 커팅식이 시작되고 커팅 되는 순간 눈물이 핑하고 도는 것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이재명시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사모님이 대신 참석하시고 단대동 시의원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축하하는 오롯이 논골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받고 즐기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 가까이에 언제, 어느 때나 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던 마을만들기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 졌다. 마을 센터의 역할과 우리 아이들의 보호막이 되어 줄 그런 의미 있는 도서관이다.

개관식이 있었던 날 밤 집에 가서 세 아이를 앉혀 놓고 이런 말을 했다.

“애들아! 꿈은 언제나 꿀 수 있고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된다. 나 혼자 힘이면 내 편을 만들어 같이 노력 하면 된다.”고....

논골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야식 먹을 사람

마을 커뮤니티 사업 방향 설명회



 **2014년 5월 3일** - 논골 마을 도서관(20:00~23:00)

다시 시작 되는 두목님들의 릴레이 회의는 야심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이 시간이나 되어야 안정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회의하는 날이 되면 단체 ‘카톡방’에 ‘야식 먹고 싶은 사람 모여라’라는 말이 뜬다. 회의하자는 말이다. 집에서 편하게 먹는 야식도 아니고 회의 하면서 야식을 먹자니.... ^^ 불평을 하는 듯 하나 어느 사이에 발에다가 신발을 신기고 있었다. ‘논골작은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면서 중간 중간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기러기 동료들을 만나 목적지 까지 함께 간다. 도서관은 폐관 시간을 훨씬 넘기고도 환하게 불을 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잠깐 - 논골 도서관이 생기고 우리는 두목회를 여기서 해요.)

도서관 1층 둥근 테이블에 둘러 앉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1년 동안 같이 회의를 하고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낸 가족들이라 그런지 할 말이 많아 보였다. 회의의 흐름이 수다로 변해가는 느낌이 생겼다. 이걸 그냥 보고 계실 관장님이 아니다.

(논골 마을 만들기 윤수진 국장님이 논골 도서관 관장님이 되셨어요)



2층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면서 분위기를 바꾼다. 넓은 테이블에 둘러 앉아 다른 회의 방식을 취한다. 여태껏 사용하지 않던 방법으로 이름 하여 ‘액션 러닝’이다.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견을 적어 내는 방법을 택했다. 말로만 하는 것 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의견이 나왔다. 사람들 앞에서 말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글로 써서 내니 자신들의 의견을 맘껏 표현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나 보다. ‘이종호 실장님’이 앞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칠판에 붙이기도 하는 등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즐겁기까지 했다. 거기에 야식 먹는 재미도 한 몫 한다는....

우리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수진 관장님’의 리더십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오늘의 회의는 2014년 성남문화재단과 논골 마을 커뮤니티 사업의 세분화와 전체 사업회의 진행 방향에 대한 것으로 각 사업별로 담당자를 선정하고 사업별로 일정을 이야기하고 2015 마을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별로 일정을 조율하였다. 각각의 일에 대한 담당자와 세부 내용이 결정이되고 우리의 준비는 끝이 났지만 나라 전체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일정은 6월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③ 슬슬 시작해 볼까

마을 커뮤니티 중간보고 설명회

- 일 시 : 2014년 8월 14일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 소요시간 : 20:00 ~ 23:00(3시간)
- 참 석 자 : 논골 마을 만들기 추진위

단대동 마을 추진위들과 마을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과 사업 방향에 대한 회의를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축제 일정과 각자의 역할과 담당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홍보와 전단지 작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봉사자들을 동원 할 것인지 등등...

논골의 가장 큰 행사인 ‘논골 축제’를 이번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접근 할 지를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축제의 소재물은 ‘논골 물들이다.’이며 5가지의 아기자기한 미션이 선택되었다.

- 첫 번째 - 논골 드레스코드 (입장시 빨간색 드레스코드를 하고 올 경우 경품권 3매 증정)
- 두 번째 - 논골에서 찍은 옛날<20년 전 이하>사진 접수 (소정의 상품증정)
- 세 번째 - 논골 가족 소원 리본달기
- 네 번째 - 입장 시 손바닥 찍고 인증사진 찍기
- 다섯 번째 - 논골 골목길 사진 컨테스트



논골 골목길 사진 컨테스트

누구나 3명이상 골길 일방통행로에 있는 벽화 앞에서 사진 찍기

- 논골 골길 벽화 중 누구나 3명 이상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또는 논골 작은 도서관 밴드 또는 카페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증정
- 1, 2, 3등 시상과 접수자 전원 액자 만들어 증정
- 심사위원은 심사 판을 만들어 주민이 직접 선정
- 액자사진은 현장(축제 장소)에서 증정 (직접 오셔서 수령)

※ 전단지 홍보는 중,고등학생 봉사자들과 담당 추진위원들과 함께 하기로 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논골 도서관 밴드와 카페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기로 했다.

우리들의 축제는 이렇게 준비되어 카운트 다운을 하였다.

논골 주민 여러분! 자, 이제 즐길 준비 되셨나요?



고삐이 시끌시끌



①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학교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논골 골목길, 단대공원, 논골 내 각 공공기관 등
- 참여인원 : 논골 거주가족단위신청접수(21가족)82명 · 연인원 : 136가족 501명
- 내 용 : * 월 1회 6강(1회 논골작은도서관 하룻밤 캠프)가족단위 참여
 - * 논골 내 동네한바퀴
 - 논골 내 공공기관과 단대공원 골목길을 활용한 동네 지도 만들기
 - 논골 자세히 들여다 보기
 -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하룻밤 캠프 진행

추진 내용	
5월~7월	논골 골목길 마을학교 가족 신청 모집(20가족)
7월26일 네번째 토요일 10:00-12:00	논골 골목길 가족학교 오리엔테이션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 내 용 : 논골의 역사 및 논골마을만들기의 방향 및 가족소개 ○ 참여인원 : 20가족 76명
8월30일 16:00~ 8월31일 11:00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하룻 밤 캠프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 내 용 : 가족과 함께하는 마을캠프를 통해 전 세대의 주민소통 계기 마련 ○ 참여인원 : 20가족 82명
9월13일 네번째 토요일 10:00-12:00	우리동네 한바퀴-바람아 불어라! ○ 장 소 : 논골 민방위 안체험관 앞 - 논골 골목길 ○ 내 용 : 논골 만이 가지고 있는 골목길의 특성을 알아보고 골목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만의 골목 미션 및 컨테스트 진행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마을, 이웃, 가족 알아가기 ○ 참여인원 : 18가족 65명



<p>9월27일 세번째 토요일 10:00-12:00</p>	<p>지역주민과의 소통 - 마을을 알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내 용 : 마을을 알아보는 방식을 달리 수행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메티플랜 참여인원 : 20가족 74명
<p>10월11일 네번째 토요일</p>	<p>우리마을 생생 꿈길 벽화 야생화 지도 만들기 및 꿈색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논골 일방통행로 내 용 : 우리 마을 생생모니터를 통한 야생화 벽화 및 꿈색 만들기 우리만의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가족만의 우리마을지도 탄생 참여인원 : 18가족 62명
<p>10월25일 두 번째 토요일</p>	<p>옆 마을 탐방 (여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여주 마을 내 용 : 옆마을 탐방을 통해 우리 마을의 마을만들기를 진단하고 알아보며 마을만들기 진행과정 및 주민추진단 설립과정을 알아봄 참여인원 : 20가족 68명
<p>10월30일 다섯 번째 토요일</p>	<p>가족이 함께하는 마을학교 수료식 및 평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내 용 : 1년동안 진행되어진 프로그램 평가 및 시상 및 수료 참여인원 : 20가족 74명





2 논골 골목길 마을학교

I교시 - 오리엔테이션

7월26일 네번째 토요일 10:00-12:00	<p>논골 골목길 가족학교 오리엔테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내 용 : 논골의 역사 및 논골 마을만들기의 방향 및 가족소개 참여인원 : 20가족 76명
---------------------------------	--

2014년 논골 생태 학교 첫 등교하는 날.

올해의 생태학교 오리엔테이션은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올 초에 개원하여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은 '논골작은도서관'에서 실시했다. 조심스럽게 도서관을 들어서는 생태학교 가족들 사이로 낯익은 몇몇 가족들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멋쩍어 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가족들을 향해 2회째 참여하는 지우, 지수 쌍둥이네는 선배님의 면모를 보이며, 어서 오라고 인사를 하고는 손을 잡아당긴다. '윤수진' 관장님의 진행으로 '논골'의 역사와 앞으로의 논골 마을 만들기의 방향을 소개하고 가족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 소개를 위해 나눠 주는 종이에 우리 가족을 뭐라고 소개할까 삼삼오오 짝을 지어 쓰는 시간, 쌍둥이네와 주희네는 힘을 합치기로 한 모양이다. 두 가족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조희정씨네 가족과 구희경씨네도 서로 조금씩 의논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이라 낯설 법도 하건만 아이들이 먼저 친해지고나니 또 이렇게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변해 서로 의논을 하고 있다. 현소영씨네 가족은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멋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평상시에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을 경험을 하고 있는 가족들의 표정이 아니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이 넘쳐나고 있다. 언제 이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까?



우리 가족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면서 다시 한 번 가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가족들 앞에서 우리 가족 소개를 시작했다.

효순이네는 기수, 준수 넘넘한 두 아들과 함께여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들 자랑을 늘어 놓고, 지우·지수 쌍둥이네는 지희까지 합세해서 엄마에게 애교를 떨며 가족 소개를 마쳤다. 적극적인 참가를 하지 않는 아빠들은 이 시간만큼은 자식들의 애교에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오늘의 가족소개는 모두 다 잘하였지만 백효순네와 조희정씨네로 결정하였고 다음 시간 도서관에서 하는 하룻밤캠프를 기약 하며 끝을 맺었다.



7월 26일 논골 골목길 가족학교 오리엔테이션

2교시 -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하루 밤 캠프

8월30일 16:00~
8월31일 11:00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하룻 밤 캠프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 내 용 : 가족과 함께하는 마을캠프를 통해 전 세대의 주민소통 계기마련
- 참여인원 : 20가족 82명

가족과 함께 캠프를 시작 하는 시간 오후 4시

한 집 두집 하룻밤 잘 짐을 챙겨 들고 도서관으로 들어서는 가족들. 오리엔테이션때 보고 두 번째 보는 가족들은 그 사이 처음 보다는 조금더 친해진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로들 반가워 한다. 도서관 1층에 짐을 풀고 1층에서 가족별로 다시



모였다. 1층은 여자, 2층은 남자들의 숙소로 정해지고 각자 짐을 정리 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뒷동산을 돌아 보러 가는 시간, 낯익은 선생님들이 보였다. 작년에 이어 올 해도 '환경 살리기 실천 중앙 연합'의 숲 체험 강사님들이 강사로 오셨다. 알아 보시는 주민들은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고 두 조로 나누어 숲 체험을 시작했다.

작년 여름 열심히 벽화 작업을 했던 상원여중 담벼락 위로 멋들어지게 내려온 칠통굴사이로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것이 칠통 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나 다니면서 한 번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가족들이 여기 저기서 예쁘다면 난리다. 향기를 맡아보라며 한 송이를 따서 코 앞에 대어 주자 '아카시아'향이 난다며 너무나 향기롭다고 또 한 번 난리다.

상원 여중 담벼락을 따라 끝까지 돌아보면 '논골 소공원 입구'가 나타난다.



멋스러운 나무계단을 올라 가는 입구는 양쪽에서 빛나무가 우거져 빛나무 터널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마법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했더니 아이들은 신났다. 모기가 많은 계절이라 몸에 천연 모기 스프레이를 잔뜩 바르고 주의 사항을 듣고 이동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오솔길이라 일렬로 다녀야 안전하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한 줄로 움직이는 가족들을 따라 나무계단을 오르니 조금마한 심터가 하나 나왔다.

그 곳에는 회색빛의 몸통을 가진 제법 오래되어 보이는 여러그루의 나무들이 눈에 띄었다. 그 나무는 최소한 2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숲에 가야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하시면서 이 숲은 아주 오래된 숲이라고 잘 가꿔야 한다고 한다.

내가 가꾼 숲은 아니지만 팬스레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 잘라진 나무 밑둥 옆으로 버섯들이 나와 있었다. 독이 있는 버섯이라면서



8월 30일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하룻 밤 캠프



강사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셨다. “버섯은 어디에서 구해서 먹어야 할까요?” 아이들은 저마다 손을 들고 여기요 저기요 하고 한마디씩 했지만 다 틀렸다고 한다. 어디서 구해야 하는데요? 라고 묻는 주희 어머니의 물음에 너무나 쿨하게 “슈퍼에서 사서 먹어야 해요.” 라고 하신다. 여이가 없다면서 한 번 크게 웃었다.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버섯은 어떤 것이 식용인지 정확 하게 구별이 어려우니 슈퍼에서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신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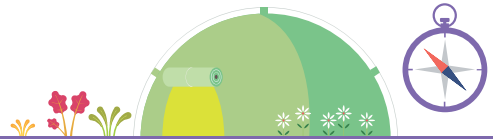
다시 이동을 시작하였다. 한 참을 올라 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오자 누가 할 것 없이 서로 손을 내밀고 도와 주는 가족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내 입가에 걸렸다. 계단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공터에서 다른 조와 만났다. 모두 모여 숲 게임을 즐기기로 했다. 일명 ‘여우꼬리 잡기’ 이다. 기다란 천 조각을 바지 허리춤에 집어 넣고 여우 꼬리처럼 보이게 하여 상대방의 꼬리를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임이다. 두 번의 ‘여우 꼬리잡기’는 조희정씨 가족이 승리했다. 상품으로는 삶은 계란 10개를 줄 계획이라고 한다.

도서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생강냄새가 나서 생강이 없을 때 대신 쓰기도 한다는 ‘생강나무’도 보고 민방위 교육장 쪽에서는 ‘가족나무’와 그 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중국에서 들어온 ‘주황 매미’도 보고 배웠다.

숲체험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돌아온 가족들의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짜잔! 오늘의 저녁 식사 메뉴는 각자 가족들이 한 가지씩 준비해온 나물로 함께 먹는 비빔밥이다. 주희 어머니는 ‘콩나물 무침’에 시원한 ‘콩나물 냉국’까지 준비해오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적은 양이 아니라 들고 오기도 무거우셨을 텐데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한다. 이렇게 서로 한 그릇에 밥 비벼 먹어 가면서 마을 전체가 한 가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캠 프



식사 이 후 동네 방네 우리 이웃들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조지에 가족 중 한 명이 누워 그모양대로 대고 그리고 꾸미는 시간. 반신반의 하면서 게임에 참여하기를 꺼리던 엄마, 아빠였지만 막상 게임이 시작되자 아이들과 함께 가족 소개를 하기로 했다. '배선힐'씨 가족은 그림도 글씨도 참으로 예쁘게 잘 썼다. 직업이 pop강사라고 하더니 직업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나 보다. 가족 소개 그림을 모두 그리고 가족 대표가 나와서 소개를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와 기발하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였다.

가족 소개가 끝나고 통기타 가수 '윤상섭'대표님과 함께 하는 가족 노래 자랑과 스킨쉽 게임 시간이 돌아왔다.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빠들의 대거 참여에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기차기, 누가 누가 입을 크게 벌리나 등등..

이 후 아이들은 1층에서 영화 감상을 하고 3층교실과 옥상에서는 엄마, 아빠들의 유쾌하고 화끈한수다방이 열렸다. 너무나 즐거워 작년처럼 민원도 살짝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길게길게 진행된 수다방은 정말이지 마련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도록 끝나지 않았다. 영화 감상 중이던 아이들은 졸리운 순서대로 각자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한 명 두 명 잠자리에 드는것을 보고 있는 사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수다방은 끝날 줄을 모른다.

다음 날이 밝았다.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밥먹기도 쉽지 않을 것인데 다들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 캠프 마지막 순서로 한 달후에 받아보는 가족 편지 쓰기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 각자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밥상 머리에서 한 그릇에 숟가락을 부딪혀 가면서 같은 지붕아래 잠을 자는 가족이 되었다.

논골 가족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해요. 사랑합니다.

3교시 - 동네 한 바퀴 바람아 불어라.

9월 13일
두 번째 토요일
10:00-12:00

우리 동네 한바퀴-바람아 불어라!

- 장 소 : 논골 민방위 안전 체험관 앞 - 논골 골목길
- 내 용 : 논골 만이 가지고 있는 골목길의 특성을 알아보고 골목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만의 골목 미션 및 컨테스트 진행 / 잘 알지 못했던 우리마을, 이웃 가족 알아가기
- 참여인원 : 18가족 65명

다시 모인 마을 학교 학생들!

마을 안에 있는 민방위 안전 체험관 앞에 모여서 다시 한 번 마을 탐방을 한다.

논골 만이 가지고 있는 골목길의 특성을 알아보고 골목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만의 골목 미션 및 컨테스트가 진행된다.

우리 마을, 우리 이웃, 우리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오늘의 미션은 다음과 같다.

1. 논골에 있는 야생화 벽화중 짙레꽃이나 구절초 앞에서 가족사진찍기
2. 단대교회 옆 야생화 벽화에서 가족사진찍기
3. 세개의 해바라기 벽화 앞에서 사진찍기
4. 논골 소공원에서 질경이 풀로 제기 만들어 10개 차기
5. 찰흙으로 곤충 만들어 나무에 붙이기
6. 논골 유래 알아보고 수기로 작성해보기
7. 등 칠 잎 으로 가면 만들어 쓰고 사진 찍어 오기
8. 논골 작은 도서관 외벽에 그려진 만화 캐릭터 중 마음에 드는 캐릭터 앞에서 사진찍기



도서관 밴드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어느 가족이 먼저 끝을 내고 올지 기대가 많이 된다. 지우, 지수 쌍둥이네가 먼저일지 주희, 주연이 쌍둥이네가 먼저 올지 밴드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주희네가 일등으로 그리고 송웅섭씨 가족이 두 번째로 밴드를 울렸다. 1등에게는 상품이 있다. 바로 삶은 계란 1판이다.

도서관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미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서로에게 이야기 해 주는 시간을 스스로들 가지고 있다. 굳이 앞에서 진행자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가족들끼리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워 졌다는 것이라....

아이들은 저희들 나름으로 이 골목에는 누가 저 골목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골목에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네 할머니도 만나기도 하고 이웃을 알아보는 미션 수행은 클리어 되었다.

동네탐방





4교시 - 우리마을 구석구석

9월 27일
네 번째 토요일
10:00-12:00

지역주민과의 소통 - 마을을 알아본다!

- 장 소 : 논골 작은 도서관
- 내 용 : 마을을 알아보는 방식을 달리 수행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메타플랜
- 참여인원 : 20가족 74명

세 번째 등교시간, 삼삼오오 모이는 가족들에게 마을을 정복하러 가자고 하시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겁을 주는 감사님들이다. 여러 조로 나누어 마을 골목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찰해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등교시에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지도로 그려 보기로 했다.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럴 때는 우리 아이들의 재치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서 기록하면 되요.”한다. ㅎㅎ

기특하게 필기도구도 함께 챙기는 녀석들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엄마들도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기특해 흐뭇하게 바라보느라 다른 조가 출발한 것도 모른다.

“얼른 출발 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급하게 도서관을 벗어나는 가족, 바로 “조희정”씨네 가족이다.

동네탐방





일방통행로 백계단 옆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옛날 ‘논골’에 집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다랭이 논을 그려 놓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논들 주위로 사계절 내내 돌아가면서 피어나던 야생화들을 그려 놓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중에는 집주인이 좋아해서 그려 달라고 한 꽃도 있다. ‘논골’에 벽화가 있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던 가족들도 그 위치와 장소에 왜 그 야생화가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좋아들 한다.

또 하나 논골 소공원 입구가 어딘지도 알게 되고 일방통행로 안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분들도 계신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안에서도 내 집 앞이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가족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논골 마을 학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이웃에 대해 알고 다함께 같이 잘 사는 것이 마을 만들기를 하는 목적이 아닌가!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하교하라는 말을 했지만, 다음 시간에 그려야 하는 지도 걱정에 여기 저기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는 가족들도 있다.

5교시 - 야생화 지도그리기

10월 11일
두 번째 토요일

우리 마을 생생 꿈길 벽화 야생화 지도 만들기 및 꿈색 만들기

- 장 소 : 논골 일방통행로
- 내 용 : 우리 마을 생생 모니터를 통한 야생화 벽화 및 꿈색 만들기, 우리만의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가족만의 우리마을지도 탄생
- 참여인원 : 18가족 62명

지난 시간 직접 모니터 해서 수집 해둔 마을 정보를 가지고 논골 마을 생태지도를 그리기로 한 날이다. 어느새 모였는지 준비해둔 색연필과, 사인펜 등등 지도를 그리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빨리 그리자고 조르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가 제일 잘 그릴 거예요.”라며 자신감을 들어내고 있다.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과 메모를



찾아가며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가족들... 가끔 옆의 조는 어떻게 그리는지 기웃 거리기도 한다.

어른이나 애들 이나 모두 경쟁심리가 발휘되는 것은 여쩔 수 없나 보다. 누가 더 잘 그리는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을을 돌아보고 느끼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소중한 것 일 텐데.. 열심히 지도를 그리고 꾸며서 제목을 붙이고 발표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꾸미기에 함께 동참을 한다. 엄마들도 최대한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이다.

잠깐 동안 진짜 학교에서 내어준 과제물이면 저렇게 자유롭게 두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드디어 지도가 완성이 되고 가족들이 저마다 각자의 지도를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커다란 전지에 어쩔 이렇게들 상세히 적절한 크기로 잘 그렸는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만 다듬으면 일방통행로 입구에 야생화 위치 지도로 사용할 수 있게 게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모두들 발표를 잘 마치고 과제를 훌륭하게 해냈다는 만족감과 한 편으로는 시원하다는 마음으로 하교를 시작 한다. 얼굴에는 하나 가득 이웃과 같이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미소를 머금고.....



6교시 - 옆마을 탐방

10월 25일
네 번째 토요일

옆 마을 탐방 (여주)

- 장 소 : 여주 마을
- 내 용 : 옆 마을 탐방을 통해 우리 마을의 마을 만들기를 진단하고 마을 만들기 진행과정 및 주민추진단 설립과정을 알아봄
- 참여인원 : 20가족 68명

오늘은 우리 마을이 아닌 이웃 마을 생태를 탐방하러 가는 날이다.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를 느끼며 여주 황학산 수목원으로 등교를 시작했다. 이른 시간 출발하느라 가는 동안 자는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주희네 식구들은 5인 가족으로 귀여운 막내가 함께 참석을 했다. 그런데 잘 우는 단점이 있었다. 수목원에 도착하여 입구에서 해설자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탐방이 시작되었다. 단풍으로 물든 수목원은 정말 예뻐다.

입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이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한 마디씩 하는 중이다. 해설자님께서 겨울이 되기 전 양분을 주기 위해서 거름을 뿌렸다고 한다. “그런데 왜 똥 냄새가 나요?” 라며 궁금한 것을 물어 보는 ‘기수’다. ‘말’의 분으로 만든 ‘마토분’ 거름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인분도 거름으로 쓴다고 아이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신다.

조그마한 징검다리도 건너고 친구들과 함께 수세미 덩굴 밑에 있는 그네도 타고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 위로 갈수록 고산 지대에서 서식하는 식물들로 꾸며 놓았는데 인상 깊었던 식물은 ‘눈 소나무’라는 것이었다. 고산지대의 강한 바람에 꺾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지표에 붙어서 성장 하는 소나무라고 한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나무였다.

마지막까지 올라가니 미로 정원도 있어서 가족들과 한 바탕 신나게 뛰어 놀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하였다. 신나게 놀아서 그런지 모두들 맛있게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강천보로 이동을 하였다. 한강의 생태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한 곳에 집합한 가족들과 한바탕 숲 게임을 하였다. “여우 꼬리잡기,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두 게임 모두 확실히 몸으로 하는 게임이다. 주희 아버님은 막내 성재를 업고 게임에 참석하시어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빠로 등극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게임으로 아이들과의 스킨십 시간을 가지고 나면 어른들은 지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늘은 무한 에너지이저라도 달고 오셨나 보다. 지치지도 않고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7교시 - 아쉬운 하교

10월 30일
다섯 번째 토요일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학교 수료식 및 평가회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 내 용 : 1년동안 진행되어진 프로그램 평가 및 시상 및 수료
- 참여인원 : 20가족 74명

아쉽게도 마을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되었다. 즐겁게 웃으며 들어서는 가족들의 얼굴을 대하니 벌써부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1년 동안 우리가 해온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보며, 그 순간에 모두 내 아이, 친구, 엄마, 아빠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가족들이다. 동영상의 끝이 끝나고 진행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한 말씀씩 하시는 그 순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받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대한 기쁨과 또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얼굴들이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하며 언제 다시 만날지를 이야기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받는 가족도 있고 내년에도 또 가족학교 할 것인지 확인 하는 가족, 마음 맞는 가족들끼리 다시 또 등록하자고 하는 가족도 있는 등 정겨운 소란스러움이 지나갔다. 가족 학교를 함께 진행하면서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버린 우리 주민들이다.

마을을 오고가다 스치고 지나 가다가 수다를 떨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것이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혹시나 위험 한 상황에서는 도움 줄 이모나 삼촌이 한 명씩 더 생긴 것이 이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제일 큰 행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가족 여러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문화로 논골 마을 학교

꼬마 음악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단을 구성하여 논골작은도서관 내에서 언제나 음악을 함께하는 프로그램 꼬마 음악단을 구성하여 음악회, 가족문화제 송년회 산타행사에 공연진행

- 기 간 : 6월-10월 (13강)
- 대 상 : 마을 어린이 15명 총참여 연인원 : 167명
- 일 시 : 6월5일-10월18일(13강) 매주 수요일 오후18:00-19:30

일 정	주 제	회 수	일 시	참석인원	학습 내용
6월	낮은 시 라 연습	1	6월5일	15	1주 낮은 시, 라 연습
		2	6월11일	14	2주 응용곡 '들로 산으로'
		3	6월18일	12	3주 '돌아오라 소렌토로'
		4	6월25일	13	4주 '백조의 호수'
7월	반음 연습	5	7월2일	12	1주 솔, 라 반음 연습
		6	7월9일	11	2주 레, 미 반음 연습
		7	7월16일	11	3주 낮은 시, 라 연습
		8	7월23일	12	4주 응용곡 '콜로라도의 달', '당신을 사랑해'
8월	아티 컬레이션	9	7월30일	15	1주 논 레가토. 연습곡 '카논'
		10	8월6일	11	2주 스타카토. 연습곡 '행진곡'
		11	8월13일	15	3주 포르타토. 연습곡 '소나타'
		12	10월11일	15	4주 레가토. 연습곡 '옛 크리스마스의 노래'
10월	더블 텅잉과 트리플 텅잉	13	10월18일	15	1주 더블 텅잉. 연습곡 '대식이 폴카'
총 참여인원				16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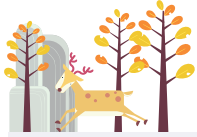
논골에 미래의 음악 재능가들이 탄생했다.

오카리나를 배우는 꼬마 음악단이 우리 논골에 있다. tv속에서 보아 왔던 오카리나를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목표는 가족문화제와 송년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3회 만에 가능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이 맞는 것 같다. 무대에 오르는 것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

연습때 보다 실전에 강하다는 말이 실감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쑥스러움을 가지고 하던 것이 이제는 그런 것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도 없을 정도다.

윤수진 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난 다른 욕심이 있다. 사실 악기를 다루는 음악단도 좋지만 나는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 악기 하나를 다루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한 개 늘리는 것이지만 합창은 나의 느낌을 온갖 마음으로 소리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정서안정의 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논골 마을신문 - 마을미디어 사업지원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 참여대상 : 논골 주민 기자단 10명 청소년기자단 8명 양성 총10강 강의 신문출간회
- 내 용 : 논골 마을 내 신문만들기 교육을 통하여 주민 소통의 역할과 정보제공 및 문화적 감성을 살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기자단과 논골 주민기자단을 구성하여 마을소식의 발빠른 소통 역할을 진행하고자 한다

회	날 짜	주 제	교육 내용
1	6/12(목)3:00-7:00	기자 학교 문 열기	- 나, 너, 우리 알기
2	6/21(토)3:00-7:00	마을공동체의이해	- 마을 공동체'에 대한 생각 나누기'
3	6/28(토)3:00-7:00	마을 미디어의이해	- 마을 신문'과 '마을 기자'에 대한 생각나누기
4	7/3(목)3:00-7:00	우리 마을 낯설게 다시 보기	1. 탐방 계획 세우기 2. 마을 탐방과 사진 스케치 3 사진에서 마을 이야기 발견하기
5	7/10(목)3:00-7:00	마을 이야기 찾기	1. 취재와 인터뷰 방법 알기 2. 보도사진의 특징과 촬영방법 알기 3. 취재 기획하기 - 취재 지도 만들기
6	7/17(목)3:00-7:00	신문의 이해	1. 신문의 구성요소 파악, 제작과정 이해 2. 뉴스의 가치와 게이트키퍼 이해하기
7	7/24(목)3:00-7:00	기사 작성의 기초	1. 기사의 종류와 형식 이해하기 2. 기사의 문장 구조 이해하기
8	7/31(목)3:00-7:00	신문 기획하기	1. 기획 회의 2. 신문의 형식, 방법, 내용, 역할 정하기





9	8/7(목)3:00-7:00	취재와 기사 쓰기 1	1. 취재와 기사 쓰기 2. 편집회의
10	8/14(목)3:00-7:00	취재와 기사 쓰기 2	2주 스타카토. 연습곡 '행진곡'



나도 북 카페 바리스타

논골작은도서관 내의 북 카페 설립준비 바리스타 자원 활동가 양성과 주민 바리스타 과정 교육을 통하여 논골 주민을 위한 커피 백 데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월1회 커피 100잔 나눔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 일 시 : 9월30일-10월28일(10강)
매주 화요일 1차 - 오전10:00-12:00 2차-오후19:00~21:00
- 참여인원 : 오전1차 팀 14명 오후2차 팀 16명 총 연인원 146명



차시	일 시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참여인원
1	9월30일 10:00-12:00	커피의 재미있는 이론과 바른 추출을 통한 커피기호 알아가기	OT / 기구설명/핸드드립 추출하기	14명
2	9월30일 19:00-21:00		커피의 전파/커피의 향기와 맛/핸드드립의 이해 및 실기	16명
3	10월7일 10:00-12:00		커피의 보관방법 / 추출의 3요소 / 커피품종 생두 구별하기 / 종류별 드립퍼 드립실기	14명
4	10월7일 19:00-21:00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커피 추출방법 알기	일본식 드립법과 유럽식 드립법의 이해/로스팅 변화에 따른 맛의 변화	16명
5	9월30일 19:00-21:00		기구별 사용방법 및 추출1	14명
6	10월14일 19:00-21:00		기구별 추출2	13명
7	10월21일 10:00-12:00		기구별 추출3	14명
8	10월21일 19:00-21:00	카페메뉴 만들기	에스프레소추출하기/아빠를 위한 메뉴만들기	16명
9	10월28일 10:00-12:00		나만을 위한 메뉴만들기/아이들 메뉴만들기	14명
10	10월28일 19:00-21:00		종강 및 수료식	16명
총 참여인원 1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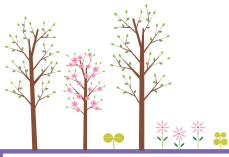
처음 수강 신청을 받으면서 놀랐다. 바리스타 수업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강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야간 수업에는 인원이 너무 몰려서 주간으로 가시는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야간에 퇴근하시고 나서 수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논골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놀랐고 또한 빠짐없이 출석하는 열의에도 놀랐다. 이 모든 것이 마을 도서관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활동가들의 봉사없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오후 8시까지가 개관시간인 도서관에서 9시까지 수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관장님과 직원들 덕분이다.

커피의 재미있는 이론과 바른 추출을 통한 커피기호를 알기 위해서 하루 저녁에 수십번도 맛을 더 보는 풍경을 자아내며, 사심 가득 담아서 5통 통장님 아들 '한 기수'군이 내린 커피가 제일 맛있다는 말도 해본다. 기구의 사용과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로스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드립법과 커피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다. 점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즈음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솜씨를 우리 주민들에게 한 번 맛보여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은 어디로 갔는지 반신반의 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 진격의 논골 주민들이 아닌가!!
맛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맛과 상관없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나에 찬성을 하시면서 나눔데이 동아리는 조직이 완료되었다.

두목님도 뽑고 부두목님도 뽑아서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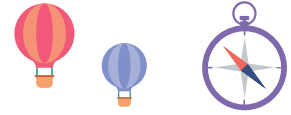
나도 환경강사 - 친환경 비누 만들기

우리 마을 악취제거 EM비누 및 친환경 비누 만들기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논골마을
- 참여인원 : 논골 주민 경력단절여성 20명 총참여 인원 : 231 명
- 일 시 : 7월17일-10월20일 (12강)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2:00

친환경 비누 만들기

회 차	참여 인원	제목	배울 것	해볼 것	필요한 것
7월	17일 20명	EM 친환경 세안비누 만들기	EM에 대하여 알기 EM활용법 알기 친환경 비누의 종류 EM친환경 세안비누 만들기	EM을 활용하여 세안비누 만들어보기	EM원액88리터, 식용유280리터, 가성소다50kg 블라인더3개, 스테인레스용기5, 계량컵5, 저울1 주걱3, 고무장갑6개, 비누틀(30*6구) 여러 가지 멀티탭3, 목장갑10개, 앞치마6개,
	24일 17명				
	31일 18명				
8월	7일 20명	천연 세안비누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친환경 비누의 종류 재료에 대하여 이해하기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기능성비누 만들어보기	비누베이스240KG, 천연첨가물, 블라인더3개 유황, 글리세린 비타민E, 스테인레스용기5 계량컵5, 저울2, 주걱3, 팔토시10개, 앞치마6개 비누틀(30*6구) 여러 가지, 멀티탭3, 목장갑10개
	14일 20명				
	21일 20명				
9월	28명 20명	EM 친환경 세안비누 만들기	EM활용법 알기 친환경 비누의 종류 EM친환경 세안비누 만들기	EM을 활용하여 세안비누 만들어보기	EM원액88리터, 식용유280리터, 가성소다50kg 블라인더3개, 스테인레스용기5, 계량컵5, 저울1 주걱3, 고무장갑6개, 비누틀(30*6구) 여러 가지 멀티탭3, 목장갑10개, 앞치마6개, 비누포장 케이스 포장재료
	18일 19명				
	25일 19명				



10월	14일	20명	EM 친환경 세안 비누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친환경 비누의 종류 재료에 대하여 이해하기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기능성비누 만들어보기	비누베이스240KG, 천연첨가물, 블라인더3개 유황 글리세린 비타민E, 스테인레스용기5, 계량컵5, 저울2 주걱3, 팔토시10개, 비누틀(30*6구) 여러 가지, 멀티탭3, 목장갑10개, 앞치마6개, 비누포장케이스 포장재료
	21일	20명	·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28명	20명				

총 참여인원 231명

노화된 하수도가 많은 논골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심하게 느끼는 일은 다반사이다. 여름은 특히 심하게 느껴진다.

대처 방안으로 EM비누 만들기과 세제 만들기 교육을 통하여 활성액 사용법을 활성화 하여 악취 없는 마을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비누강사 양성 및 EM비누의 성분과 활용방법을 알고 EM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기로 했다.

7월 첫 수업을 위해 만나 마을 주민 수강생들은 마을에서 오가 가다 안면이 한 번씩 있는 분도 계시고 낯선 분도 계셨다. 서로 자기 소개의 시간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

첫 수업은 이론 수업으로 ppt 수업이었다.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도 있는 비누가 우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였다. 비누에 섞여 있는 ‘계면 활성제’성분이 피부에 잔류해서 인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수도를 통해 지나면서 어떤 형태로 실생활에 나쁜영향을 미치는지 눈으로 보는 수업만큼 확실하고 크게 와닿는 것은 없다. ppt 동영상이 끝나자 여기 저기서 수강생들이 EM이 이렇게 많은 활약을 하는지 몰랐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비누의 성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쁘게 작용하는지 알고 놀랐다 등등... 반응이 참 다양하다.

다음 시간 부터는 em비누부터 시작하여 친환경적인 비누를 만들 것이라는 것 등을 이야기 하고 수업이 끝이 났다.

시간이 흘러 이제 우리는 비누를 그냥 만들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드는 강사님이 되어 있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나눔데이에 비누를 만들고 em활성액의 효능에 대해 홍보를 담당하기도 한다. 모두 다함께 악취없는 마을에서 살자는 우리는 신념을 가진 비누 동아리 ‘EM’이라고 동아리 이름도 지어 보았다.



우리동네 직업군은?- 진로탐색

우리 동네 직업이 궁금하다! (진로탐색)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논골마을
- 참여대상 : 마을 청소년 15명 총참여 연인원 : 127 명
- 내 용 : 청소년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마을 내 직업을 탐색한 후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하여 마을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함.
청소년들은 마을신문 기자단으로 활동.
- 일 시 : 7월26일-10월11일 (10강) 매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주	주 제	강의내용	참석인원
7월26일 토요일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15
	세부강의내용	미디어감상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 및 가치관 알아보기	
8월2일 토요일	강의주제	직업흥미 및 성격유형 탐색	12
	세부강의내용	자신의 직업흥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 자신의 성격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8월16일 토요일	강의주제	자신이 알고싶은 직업탐색	13
	세부강의내용	알고싶은 직업에 종사하는 분과 인터뷰 및 동영상촬영	
8월23일 토요일	강의주제	직업흥미 및 성격유형 탐색	11
	세부강의내용	자신의 직업흥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 자신의 성격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8월30일 토요일	강의주제	직업흥미 및 성격유형 탐색	15
	세부강의내용	알고싶은 직업에 종사하는 분과 인터뷰 및 동영상촬영	
9월13일 토요일	강의주제	직업흥미 및 성격유형 탐색	9
	세부강의내용	알고싶은 직업에 종사하는 분과 인터뷰 및 동영상촬영	
9월20일 토요일	강의주제	직업흥미 및 성격유형 탐색	13
	세부강의내용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생각한것과 현실과의 차이점을 토론	
9월27일 토요일	강의주제	직업흥미 및 성격유형 탐색	14
	세부강의내용	직업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 자신에게 중요한 직업가치의 명료화	
10월4일 토요일	강의주제	직업흥미 및 성격유형 탐색	10
	세부강의내용	내가 흥미 있는 직업과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 연구하기	



7월26일 토요일	강의주제	진로에 대한 방향감 인식 및 마무리	15
	세부강의내용	촬영한 동영상 발표 및 진로에 대한 가치관확립	
총 참여인원 127 명			



③ 성남 마을 공동체 - 주민 up 마을학교

내이웃을 탐하다

제3회 논골 축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던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서 아주 큰 인명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접했다. 넓게는 같은 마을이기에 축제를 할지 말지 많은 고민을 하던 우리는 축제를 접기로 하고, 대신 마을 만들기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견학을 가기로 했다. 주민들과 함께 우리 '논골'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성미산, 복촌, 서촌, 송천 떡 마을' 까지 짝짝한 일정으로 4곳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다. 논골 추진위 말고도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



논골 주민 워크숍

- 일 정 : 2014년 11월 16~17일(1박 2일)
- 장 소 : 성미산마을, 북촌, 서촌, 양양 떡마을
- 대 상 : 논골 마을 주민 45명
- 주 최 : 단대동마을센터



시 간		주 요 내 용
16 일	08:40-08:50	단대 우체국 집결
	08:50-09:00	인원 점검, 명찰 배부, 출발
	09:00-10:00	성미산 마을로 이동, 도착
	10:00-12:00	성미산 마을 탐방 마을해설 (소행주 대한학교 작은나무 등)
	12:00-12:50	식당으로 이동, 중식
	13:00-13:50	북촌으로 이동
	14:00-15:30	북촌 마을 탐방(만남의 장소-창덕궁 정문 앞)
	15:30-16:00	서촌으로 이동
	16:00-18:30	서촌 마을 탐방 및 마을해설
	18:40-22:00	양양으로 이동, 숙소도착, 배분
	22:00-23:00	식당으로 이동, 석식
	23:00-	숙소로 이동, 취침
17 일	07:00-09:00	조 식
	09:00-11:30	논골마을만들기 현황과 과제 우리마을엔 무엇이 필요할까! 집담회
	11:30-13:00	정리 및 이동준비 점심식사
	13:00-15:00	양양 송천 떡마을 만들기 마을이야기 및 체험
	15:00-19:00	성남 도착, 해산



첫 번째 이웃 -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만들기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성미산 마을로 갔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어떤 부분이 일맥상통 하는 것이 있는지 이른바 벤치마킹을 위한 마을 탐방이다.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출발 하는 버스에는 그 동안 마을 안에서 오고 가며 만났던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다. 어색한 눈인사 나누고 자리를 잡고 출발하였다. 가는 버스 안에서 서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나왔을 마을 안내자 선생님께서 마을의 소극장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들어서며 안내를 시작하였다.

‘박미라’ 일명 꽃사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은 별명이 한 개씩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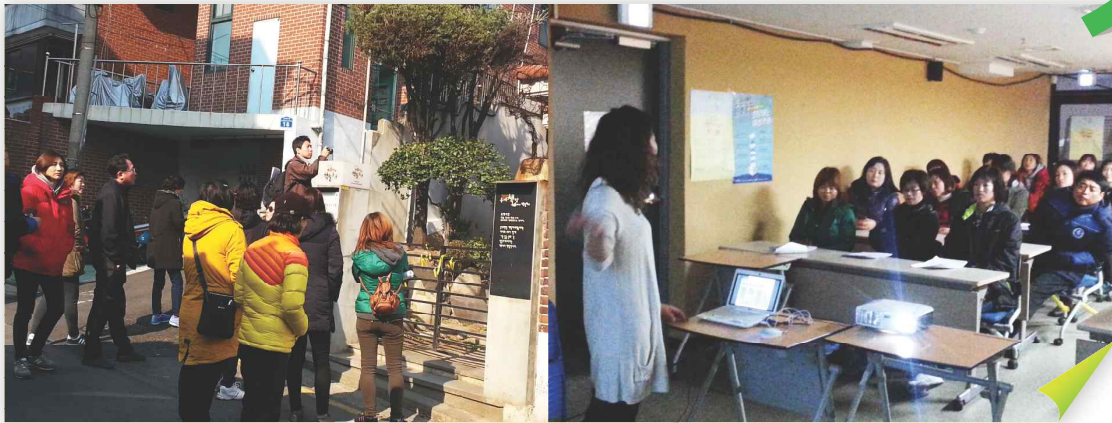
마을 센터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으로 성미산 마을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된 마을로 자리를 잡고 유지하는 모습이 아주 많이 부럽기까지 했다. 허나 그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불쑥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무척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도 많고 원하는 목표가 있기에 그들은 아직도 달리고 있는 중이란다. 달리다가 힘이 들면 가끔 걸어서 그러다가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리고 또 달리는 중이란다.

이 곳의 마을 만들기의 시초는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주민들의 공동출자를 통해서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것 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안학교, 어린이집, 커피숍, 공방, 반찬가게 등등....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소.행.주’라는 공동 주택을 지어서 1층과 2층 공간을 공동으로 쓰고 주거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협동조합이 뭘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여기서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자발적이고, 민주적이며, 사업 활동이 자조적이고, 경영이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부기업과 구별되며, 또 경제활동의 목적이 조합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도 구별되고, 출자액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마을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마을을 변하게 할 수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웃 - [북촌 한옥마을]

조선시대 양반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답게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곳이다.
창덕궁에서 시작하는 마을 탐방은 '서울 도보 관광'에서 나오신 두 분의 해설자님과 함께하기로 했다. 두 조로 나누어 '창덕궁'에서 '헌 법 재판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조선의 양반 문화가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을 마을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다. 주말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스쳐 지나갔다.
처음 장소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였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창덕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해설자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손수건 하나.
북촌 구석구석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유적지를 손수건 위에다 옮겨 놓고 있었다.
나만 느낀 것일까? 내 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바쁘게 뛰는 사람 없이 천천히 물 흐르듯이 역사 속을 거닐 듯 다니는 곳, 느낌을 미학으로 보여 주는 곳이 이 곳이 아닌가 싶다.
천천히 구석구석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한 마을, 느낌을 반겨 주는 곳, 어느 한 고개에서 돌아 본 곳은 북촌에서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다. 특히 가을 단풍들 때 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았다.

TV오락 프로 중에 소개되었던 북촌 8경은 가는 곳마다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럴 진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더 하겠다 싶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어깨를 스치며 지나다니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살았다고 하는 한옥 집 앞에서는 그 집 문고리를 잡으며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 나도 고3 아들 녀석의 수능대박을 빌어 보았다. 이 마을의 특징이 한옥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 듯 했다. 곳곳에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인 적송이 많았다. 이런 저런 볼거리들이 많아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도중 눈에 들어오는 간판 하나가 있었다. 외국어 간판이 많은 요즘 ‘외국어는 저리 가라’는 외침을 보이며 한글로 된 예쁜 간판 한 개가 눈에 들어왔다. 한옥 치과의 간판이 ‘훈민정음’체를 간직하고 ‘이 해 바 ·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ㅟ · ㅢ 집’으로 정겨움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반갑기까지 하다.

개인 주택가로 접어들면서 안내자님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바뀌고 있었다. 마을 탐방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경남 통영의 ‘동피랑 마을’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외적인 마을 만들기는 잘 되고 있으나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함과 사생활 보호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북촌 마을 만들기 단체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재판소 앞에서 일행을 만나는 것으로 북촌 탐방은 끝이 났다. 아이들과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었다.





세 번째 이웃 - [서촌]

조선 시대 북촌 양반들의 시야를 벗어나 역관이나 의관, 중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한다. 이런 곳에 어떤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나 싶었다.

마을 만들기의 주체를 맡고 계신 주민 자치위원장하신 ‘배한웅’선생님께서 마을 안내를 해주셨다. 마을 사람들의 공동 투자로 만들어진 ‘회화 나무’라는 카페에서 만나서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다. 통인 시장과 한옥 마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듣기 좋은 중저음 목소리로 설명하시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듯 했다.

황폐화되어 가던 마을에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조금은 요란하게 사람 사는 마을로 변해가고 그 덕에 집값이 올라 젊은 예술인들을 다시 길거리로 내몰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이 곳에 지각 있는 몇 분들이 ‘품애’ 라는 이름의 마을 단체를 만들어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시작 한 것은 사는 것이 힘들어 아기 돌잔치를 할 수 없는 부모에게 돌잔치를 해주고,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 주는 것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누군가 먼저 우리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다 보니 그 아픔이 느껴졌을 것이고 다다른 생각들이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힘들게 돌아다니며 도와 달라고 했을 그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거의 두 시간에 가까운 명강의를 접으며 통인 시장 쪽으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가는 도중 한옥 한군데에서 발길을 멈추어 섰다. 자세히 보라는 말씀에 다들 열심히 보았지만 다른 집들과 별반 다를게 없어 보였다. 안내자님이 하시는 말이 이 집은 영화에 출연을 했다고 한다. 바로 ‘건축학 개론’의 여자주인공 국민 여동생 ‘수지’의 집으로 나왔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다들 다시 한번 그 집을 보았다. 명소가 되어버린 이 집을 보려고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마을이 활기를 띠는 것은 좋으나 이곳 역시 북촌처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식사할 때나 마당에서 머리를 감을 때도 대문을 열고 구경을 하러 들어오는 관광객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것이 서촌 마을 만들기의 현재 제일 큰 과제라고 한다.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싶은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았다.

수지의 집을 뒤로 하고 통인 시장 건너편으로 이동하면서 공사 중인 한옥 앞에 멈추어 서는 안내자님은 집의 처마끝



빗물받이를 가리키며 일본의 문화 잔재라는 말을 해 주셨다. 원래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은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일제 때 빗물받이를 하도록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실생활에 편리하게 바뀌었지만 한 편으로는 기와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낙수의 운치를 보지 못하게 되어 버린 안타까움도 있었다.

통인 시장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와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낯 익은 장소가 나왔다. 괜히 반가웠다. 인터넷에서 서촌 마을을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곳 ‘대오서점’이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무슨일인가 나도 들여다보았다.

낯고 좁아 보이는 서점 안에서 때마침 밴드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한참을 머물게 하는 곳이었다.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전문가들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 주고 있었다. 주민들의 쉼터이자 에너지 충전소가 되어 주고 있는 곳이라고 안내자님은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마침내 다다른 통인 시장은 아쉽게도 장터가 쉬는 날이었다. 천천히 안내자님과 돌아보는 그 곳에서 나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상권 지도’였다. 처음 보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곳을 찾아 갈 수 있을 만큼 섬세

하고, 또 서촌의 역사도 함께 물어나게 만들어 놓은 무척이나 탐이 나는 지도였다. 현재 ‘논골’에서도 만들고 있는 상권지도와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아쉽지만 발걸음을 돌렸다.

다음 이웃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송천 떡 마을이다. 도착하니 오후 10시가 넘어 가고 있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늦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오늘 보고 느낀 바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련만 밤 늦도록 자기 숙소로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식사자리를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결국은 윤수진 관장님께서 자고 아침에 만나자는 말을 하고나서야 토론의 장은 끝을 맺었다.





네 번째 이웃 - [송천 떡 마을]



아침을 먹고 주변을 산책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 다들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그런지 얼굴이 부스스해 보였다. 허나 그도 잠시 떡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은 또 다시 씩씩한 전투요원으로 변해있었다.

숙소에서 30여분을 이동하니 떡 마을이 나왔다. 떡을 만드는 체험장을 한옥으로 갖추고 있고 자갈로 된 마당 귀퉁이에는 요즘 보기 드문 널뛰기 시설도 되어 있었다. 보기 드문 광경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다가 떠밀려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니 위생복을 정갈히 입으신 어르신들

3분이 계셨다. 어서 오라고 다정하게 하시는 말씀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96세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저렇게 연세 많으실 때까지 일을 하셨는데 싫어서 괜스레 눈물도 살짝 났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떡매도 치고 그것으로 예쁘게 인절미도 빚어 보았다.

용기에 담아내어 주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이 참으로 어여뻐 보였다. 떡 봉지를 손에 쥐어 주시는 어르신께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물음을 해보았다. 고개를 저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서 늙은이들을 이렇게 써주니 감사하지.”라고 하신다. 그러시면서 “돌아가면 동네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우리 같은 노인네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 우리는 내 자식, 내 손자 먹이는 마음으로 일해, 어느 곳에 가도 노인들은 그 마음으로 일해. 그러니 믿고 맡겨도 돼” 하신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돌아서는데 마을일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마당으로 먼저 나온 일행들은 어릴적 기억을 떠올리며 벌써 널뛰기를 하고 있었다. 나도 한 번 해 보았지만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당 한 쪽 귀퉁이에 포토존이 마련되어있어 함께 한 일행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성남으로 이동을 하였다. 이동하는 도중에 있는 한계령 휴게소에서 따뜻한 커피와 간식으로 살짝 휴식을 취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눈요기를 시키고 성남으로 향하였다.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이웃 탐방이었지만 생각할 것이 더 많은 워크샵이었다. 주민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고 하룻밤 같이 자는 것만으로도 이전보다 더욱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이 느낌은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을 활동가 몇 명이 더 추가 될 것 같은 행복한 느낌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남 마을 공동체 - 주민 up 마을학교

- 참여대상 : 논골 주민 중 마을대학 3차년도 이상 및 성남시내 마을리더 20명 내외
 성남지역 내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마을 7개 마을
 논골마을추진위원회, 서현행복마을, 원마을공동체, 봇들마을, 도촌섬마을, 꿈광리마을
 금곡동 행복마을 지역 내 마을추진위원
 총 참여인원 : 422명
- 내용 : 논골 마을대학 3년차 과정을 거친 마을주민의 마을활동가 교육 및 성남지역 내 마을 만들기
 공동체역량강화 교육진행을 통한 성남지역 내 마을네트워크 구성
 논골마을추진위원회, 서현행복마을, 원마을공동체, 봇들마을, 도촌섬마을, 꿈광리마을
 금곡동 행복마을등 7개 마을 중심으로 성남시마을공동체협의회 발족 및 창립
- 강좌 : 8강 진행(7월 - 10월)



회차	일 정	내 용
	7월18일 16: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지역 내 마을 추진협의회 구성 및 교육 구성 - 성남지역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 장 소 : 논골마을도서관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25명
1	7월23일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마을네트워크 탐방 및 교육 1 - 단대동 논골의 마을만들기 및 성남마을공동체 교류 - 장 소 : 논골마을도서관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29명
2	8월19일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마을네트워크 탐방 및 교육 2 - 금곡동 행복마을만들기 및 성남마을공동체 교류 - 장 소 : 청솔마을 9단지 관리사무소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19명
3	8월28일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마을네트워크 탐방 및 교육 3 - 서현행복마을의 마을만들기 및 성남마을공동체 교류 - 장 소 : 서현행복마을회의 사무실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22명
4	9월11일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마을네트워크 탐방 및 교육 4 - 도촌 섬마을의 마을만들기 및 성남마을공동체 교류 - 장 소 : 도촌섬마실카페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23명
5	9월23일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지역 내 마을 공동체 논골마을추진위원회, 서현행복마을, 원마을공동체, 봇들마을, 도촌섬마을, 꿈광리마을 금곡동행복마을 7개 마을 중심으로 성남시마을공동체협의회 발족 및 창립 - 장 소 : 성남시청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성남시민 관계자 232명
6	10월1일 10:0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마을네트워크 탐방 및 교육 6 - 상대원 원마을의 마을만들기 및 성남마을공동체 교류 - 장 소 : 책이랑 도서관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19명



회차	일 정	내 용
7	10월28일 10:00-12:00	- 성남 마을네트워크 탐방 및 교육 7 - 금광1동 꿈광리마을의 마을만들기 및 성남마을공동체 교류 - 장 소 : 금광1동주민센터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28명
8	8월28일 10:00-12:00	- 성남 마을네트워크 탐방 및 교육 8 - 삼평동 봇들마을의 마을만들기 및 성남마을공동체 교류 - 장 소 : 꿈너비도서관 - 참여인원 : 7개마을 대표 및 활동가 25명

성남시 내에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7곳이 뭉쳤다.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같은 이들이 서로 배우고 도우며 함께 하기 위해서 뭉친 것이다. 논골 마을추진위원회, 서현동 행복마을, 원마을 공동체, 봇들 마을, 도촌동 섬마을, 꿈광리 마을, 금곡동 행복마을 지역 내 마을추진위원등 모든 마을에 든든한 친구들이 생긴 것이라 본다. 각 마을을 방문하여 그 마을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금곡동의 게릴라 꽃밭 가꾸기 사업은 순식간에 마을에 꽃 밭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 마을 어디에 저런 꽃밭이 있으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했다.

도촌동 섬마실 카페는 부럽고 꼭 우리 논골에도 갖추어 넣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다. 아늑하게 꾸며서 아주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꿈너비 도서관도 아주 인상깊었던 부분이 있었다. 7개 마을 모두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기 위해 활동가들의 노력이 무척 컸다. 누군가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이 아닌 봉사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분이 대부분인 마을 활동가들이다. 이런 우리에게 서로서로는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지치지 않고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4년 9월 23일 성남 시청에서 7개 마을을 중심으로 성남시마을공동체협의회 발족 및 창립식 을 가졌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박수를 받으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게 된 셈이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박수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한 약속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지 공동체에서 이야기 하고 토론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는 마을 활동가들의 각오도 다지게 되는 자리였다.

마을 공동체 여러분 ! 다함께 힘내서 파이팅!입니다.





단대동



금곡동



서현행복마을



도촌섬마을



상대원 원마을



삼성동 봇들마을



금광도 꿈광리 마을



공동체협의회 설립 및 발족



2014년 보고회와 평가회

- 일 시 : 2014년 12월 10일
- 장 소 : 논골작은도서관
- 소요시간 : 10:00 ~ 13:00 (3시간)

아쉽지만 우리들의 제3회 논골 축제는 열리지 못했다. 전 국민의 아픔이었던 세월호 사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인명사고로 인해 축제는 취소되었다. 준비해 두었던 모든 것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진격의 두.목.회가 아닌가!

축제 대신 마을 주민들과 워크 샵을 다녀오기로 했다. 우리 마을 보다 앞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앞서 가는 마을을 탐방 했다. 서울에 있는 성미산 마을과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을 탐방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강원도 양양 송천 떡 마을로 다녀왔다. 뽀뽀한 일정을 소화 하느라 힘들었을 주민들을 걱정 하였지만, 오히려 너무나 즐거웠으며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는 주민들의 인사 한 마디에 피곤은 멀리멀리 도망 가버렸다.

2014년 한 해의 일정을 마치고 논골 추진위들과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가회를 가졌다. 치르지 못한 축제가 아쉽기는 하나 주민들과 함께한 워크샵 또한 너무나 뜻 깊은 자리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가회 이후 논골 마을 도서관에서 주민들과 하는 행사는 남아있어서, 무사히 잘 치를수 있도록 추진위가 도울 일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서정옥 7동 통장님께서 논골 공영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노화 되어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안전을 올리셔서 두목회에 참석하신 안광환 시의원님과 함께 돌아보기로 하고 평가회를 끝마쳤다. 2015년을 위해 이제 다시 또 준비 시작이다. 열심히 또 다시 뭉 준비를 하고 있다.

아참! 여기서 깨알 같은 논골 추진위 자랑을 조금 하자면 '안광환 시의원님'의 말을 빌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회의 진행 방식을 한번도 본적이 없으시다면 무한 칭찬을 하셨다는 후문이 ...





② 2014년 단대동 마을만들기와 앞으로의 과제들

2014년 단대동 마을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주민들에게 좀 더 발전된 단계의 마을만들기 교육과 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좀 더 여유있는 삶을 갖게하였고, 논골이 성남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디딤돌이자 모델이 되기 위해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학교

20가족을 선정, 논골 내 동네한바퀴와 논골 내 공공기관과 단대공원 골목길을 활용한 동네 지도 만들기 논골 자세히 들여다보기 등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학교를 진행하였고 논골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한 하룻밤 캠프는 논골가족들이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작은 추억이었으며 서로 모르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학교는 이처럼 논골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초석이 되어 논골주민들이 마을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주민 up 마을학교

논골마을대학 3년차 과정을 거친 마을주민의 마을활동가 교육 및 성남지역 내 마을 만들기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진행을 통한 성남지역 내 마을네트워크 구성 논골마을 추진위원회, 서현행복마을, 원마을 공동체 붓들마을, 도촌섬마을, 꿈광리마을 금곡동 행복 마을 등 7개 마을 중심으로 성남시마을공동체협의회를 만들었다. 성남시마을공동체협의회가 마을사업을 하고자하는 많은 마을들을 서로 도와주고 협의하여 성남시가 마을사업을 하기 좋은 시가 되기 위한 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문화로 논골 마을학교

도서관이나 일반문화프로그램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논골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도 북카페 바리스타와 친환경EM비누만들기,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진로 미디어 탐색,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꼬마음악단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주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으로....행복이 가득한 논골 마을이 되고자 한다.







② 주민 후기

2014 논골 계릴라 송년회

세부 일정

날 짜 -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시 간 - 오후 8시~10시(두 시간)

장 소 - 논골 마을 도서관 1층

드레스 코드 - 빨강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올 한해 참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2015년은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루 하루가 되길 바라며 논골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의 송년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흥대 밴드 "노래와 이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식사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손 잡고 오세요.

논골 도서관 밴드에 12월 28일에 올렸다. 갑작스런 관장님의 돌출 프로그램에 직원들 모두 정신 없이 준비한 행사이다. 준비하면서도 갑자기 마련된 계릴라 송년 모임에 얼마나 주민들이 호응을 해줄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행사. 우리 논골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놓칠리 없다는 마음 한 귀퉁이에 믿는 구석이 있는 그런 행사였다. 그러나 막상 행사 당일이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조금씩 타는 시간이 흐르고 7시가 되면서 게임 아ут 되었다. 앉을 자리 없을 까봐 미리 오신다고 주민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여 도서관은 정말 발디딜틈이라고는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단대동 시의원님들 두 분도 함께 참석하시어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보냈다.

두 시간 동안의 열정적인 공연 시간을 보내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는 주민들 한 동안 여운이 남아 자리에 앉아서 이웃과의 수다 시간을 잠깐 가지고 돌아 가는 분들도 많았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보내시고 2015년 내내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논골마을 생태학교

논골에 7년째 살면서 올 한해는 아이들한테나 저한테나 논골작은도서관이 생기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도서관 이용은 물론 문화교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한층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요. 그 중 3개월동안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수 있었던 논골생태학교! 논골 살면서 서로 이웃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논골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젠 길을가다 보면 인사를 하게 되고 정겨운 동네가 된 것 같아요.

논골생태학교 수업 중 논골마을 알아가기...

골목 골목 그려진 벽화 야생화를 보면서 미술전시관 부럽지 않았구요.

단대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나무들을 알아가면서 자연에 대해서도 배웠구요. 자연에서 질경이로 제기도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과 제기차기도 해보고, 찰흙으로 곤충을 만들어서 도토리 뚜껑으로 곤충 눈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다리를 만들고 나뭇잎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완성했던 잠자리 개미 무당벌레를 나무에 찔씩 붙여놓고는 아이들이 뿌듯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상원여중 담벼락으로 내려와 넝쿨 사이사이 핀 보라색 꽃이 칠푼쿨에서 핀 꽃인지도 처음 알게되어 집앞을 나서면 무심코 바라봤던 담벼락의 꽃을 다시 정감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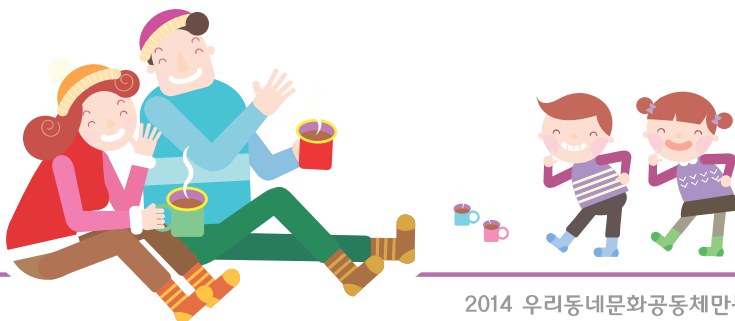
저는 어린시절을 시골에서 자라서 자연이 얼마나 좋은 놀이터가 되고 학습장이 되는 곳이라는 걸 잘 알기에, 이번 논골생태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근처 공원에서 자연을 배우고 놀았던 기억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길 바랍니다.

논골작은도서관 사랑합니다.

2014년12월23일

조희정





논골을 물들이다.

2014년 12월 17일 오후 9시 -10시

12월 17일 오후 9-10사이 논골 인근 3개동(단대동, 양지동, 은행동) 지역에 산타가 출현 했다. ‘논골작은도서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논골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로 ‘윤수진관장님’과 직원들이 준비한 산타 행사이다.

20년을 ‘논골’에서 살았지만 이런 행사는 처음이다.

논골 지역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갖고 싶은 책 한권을 산타가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행사로, 논골 지역에 거주하는 5세-10세 아동으로 논골 도서관 밴드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았다.

11월 25일 오후 8시 공지를 띄우고 이 후 2시간 가량 밴드에 신청자가 몰려 10시 30분을 넘어서까지 퇴근을 못하고 당일 신청 마감이라는 문구를 밴드에 띄우고 익 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로도 계속 신청은 들어왔고, 마을 도서관이다 보니 차례를 미룰 수 없어 집에 가서도 계속 신청자들을 정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100명을 어떻게 모집 할까를 고민하면서 광고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행사신청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도서관 사서 문정은 선생님과 의논 해 가면서 도서 구입과 포장, 산타의 동선을 체크했다.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책을 구매하는 것도 힘들고, 포장하는 것도 힘들었을 사서 선생님과 도서관 간사 ‘박수진’선생님께 이 글을 빌어 미안함을 전해 본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도와 주지 못해 미안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산타 출격 준비 완료!!!

당일 날 도서관이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옆에서 어떤 분이 “오늘 밤부터 손가락 들고 지하를 좀 파요.”하시는 통에 한 바탕 웃음을 웃고 산타행사를 시작했다. 한 시간 일찍 모여서 산타복도 입으시고, 수염에 모자 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산타가 되어 선물을 하겠다는 아버님들의 마음이 전달되어 도서관 전체에 훈훈한 공기가 감돈다. 대학생들과 고등생 봉사자들도 다 모여 넉넉히 준비한 산타복을 모두 착복하게 하고 출동 준비를 끝냈다. 산타 한 명과 보조 산타(봉사자) 2-3명이 짝꿍이 되어 드디어 출발을 했다.

이제부터 논골 전체가 붉은 색으로 물들 예정이다.

미리부터 안내문에도 공지했듯이 “주민 여러분! 붉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산타를 보시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행복한 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논골 작은도서관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룻밤 캠프”

논골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논골생태학교(가족프로그램) 대상으로
2014년 8월23일(토)~ 8월24일(일) 논골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한 <1박2일 하룻밤 캠프>

첫째 날 오후 4시 까지 도서관에 모여 함께 하는 가족들과 조를 나누고 한쪽에 짐을 내려놓고 논골 야생화 벽화를 보기 위해 마을로 고고.... 이 후 우리 마을 뒷산에 가서 숲 체험도 하고, 여우꼬리잡기도 하고, 이름 몰랐던 식물과 나무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저녁식사메뉴는 “비빔밥”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비빔밥을 먹나 하겠지만 각 집에서 밥과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 한 가지씩 가져왔다. 밥이 모자라서 도서관에서 밥을 2번 했다는 후문이.... 커다란 비빔밥 그릇에 준비한 비빔밥재료를 넣고 참기름에 김가루, 통깨까지 술술 뿌린후 비닐장갑을 끼고 비벼주면 맛있는 비빔밥 완성.. 아이들이 비빔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가족이 다 같이 먹어서 먹기엔 무난한 메뉴 같다. 각자 종이 컵에 자기 양 만큼 무한 반복으로 먹기로 했는데 맛있었는지 아이들이 두 세 번은 다시 갖다 먹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1층으로 내려와 가족소개를 하는 시간... 커다란 전지에 가족 중 한명을 그려서 가족 소개를 하였다. 모두들 너무나 멋들어지게 가족소개를 하고, 이어지는 통기타 가수 ‘윤상섭’ 강사님의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시간!

년센스 퀴즈도 풀고, 누구입이 제일 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 올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웃음을 자아냈던 것은 아빠들의 제기 차기. 일등 상품으로 문화상품권도 받았다. 나는 우리아이가 경쟁심이 저렇게 많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이의 또 다른 면을 보았다. 3층에서는 엄마아빠 담소얘기 1층에서는 아이들 영화감상까지(극장판 코난) 하고 실컷 놀다보니 어느새 아까 먹은 비빔밥도 소화가 다되고 ... 캠프의 묘미는 역시 야식이기에 간식으로 피자과 치킨...이제 캠프 시작 전에 어색하고 서먹 했던 벽은 허물어지고 ...

둘째 날 7시 기상, 아침은 제육볶음과 맑은 된장국 오전 8시부터 시작된 부모님께 편지쓰기. 이 편지는 한 달 뒤에 각자의 집으로 보내어 진다고 한다.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캠프 열어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이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주신 논골 작은 도서관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자주 다양하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방학이 되어도 마음껏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방학이라 여행도



제대로 한번 맘 편히 갈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작은 도서관의 하룻밤 캠프 덕에 좋은 추억하나 만들어간다. 가족들 모두 1박2일로 끝나는 게 아쉬운 듯...짐을 챙겨 도서관 문을 나갈 때 행복한 표정들이다. 감사하다. 도서관 쪽에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셨다. 밝게 미소 지으며 하룻밤 캠프에 참여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해 준 값진 경험이었다.

주민 박수진



마을을 탐방하다! - 성미산 그리고 북촌과 서촌

결혼하기 전 아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다양한 관계 속에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이기주의를 가장한 개인주의로.... 다른 이들이 뭘 필요가 있을까 나만 있음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온 마을탐방...

서울 마포구 성미산

벤치마킹이 잘된 서울 마포구 성미산 이른 아침 우리를 맞아주는 성미산 마을해설자님 참으로 부지런하다며 폭풍칭찬을 해줌. 우린 누 규~~ 쑥쑥 자랄 논골 마을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된 마을. 자리도 잡고 유지 하는 중 처음부터 잘하고 그러지는 않음을 다들 알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뤄낸 마을이기에 아직 가야 할 길도 많고 끊임없는 목표가 있기에 그들은 달려간다 가끔 걸어서 가끔 숨이 턱까지 차도록~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으로 만든 대안학교,어린이집,커피숍,공방,반찬가게 등 협동조합으로 단란주점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요기서 중요한 협동조합이 뭐시냐!!!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직이 자발적이고, 운영이 민주적이며, 사업활동이 자조적이고, 경영이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부기업과 구별되며, 또 경제활동의 목적이 조합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도 구별되고, 출자액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어렵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식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 같다



북촌 한옥마을

-양반, 사대부가 모여 살 던 곳

양반들이 살았던 동네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 곳 역사 속에서 마을을 보고 듣고 배움 우리는 주말이라 사람과 사람이 움직였다. 버글버글~~^^ 구석구석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한 마을 느낌을 반겨 주는 곳.

관광해설자님이 있으므로 해설을 들으며 눈으로만 관광 하는 게 아닌 정보도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아는 만큼 보고 들리는 마을에 눈이 호강하며, 그곳의 기까지 쭉~~ 흡수하심 외국어는 저리 꺼짐~~ 예쁜 한글로 된 간판이 본래 자리를 차지하며 아직은 개인집들이 많은 곳이라 해설자님도 조용하게 설명해주심.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불편함도 느낌.



서 촌

역관, 의관 등 중인들이 모여 살던 곳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며 새로이 떠오르는 곳 서촌에서 둘러볼 곳

통인시장 - 기름 떡볶이가 유명하다는 곳

대오서점 - 오래된 서점에서의 정겨움 속 글을 읽고 그 속에 마음을 들려주는 음악밴드가 있다. 이야기가 있는 카페 예술가들이 터 잡고 있던 곳이라 그런지 나만의 카페와 입간판에 센스를 더하며 사물을 보는 각도와 시선이 느껴지는 색 다른 그 곳. 외부인의 유입으로 지금은 집값이 꺾충꺾충 오르고 있어서 예술가들에겐 기쁘기만 하지는 않음..

마을을 탐해서 마을탐방인가???? 이런 마을을 공감하면서도 쉽지 않음...우리도 그들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포기하기 없기, 안되면 다른 길로 돌아가기 아님 뚫어 버리기

컴퓨터에 갇혀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이 아니 사람과 사람 관계망속에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엄마와 아이들은 같이 자란다.





홈바리스타 수업을 하고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꼭 마셔야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피로 회복제 같은 커피~~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어도 우리 마을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듣기엔 너무나 먼 거리에 수강료도 만만치 않아 배우고 싶은 생각을 마음 한 켠에 접어둔 저에게 마을 도서관에서의 홈바리스타 수업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한 첫 수업이 생각납니다. 곧바로 커피를 내려 보고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생활 속의 커피 대한 생각, 에피소드를 풀어내시는 선생님의 조금은 지루한 느낌의 수업에 끝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수업입니다. 하지만, 회수가 거듭 될수록 매일 마시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커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친구와 또는 이웃과 따스한 커피한잔으로 편안한 느낌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조금씩 재미를 느끼는 수업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보수준이라 좋은 원두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수업에 참여하면서 커피 맛을 조금 알게 되고 부터는 “흑~~~믹서가 맛이 없어지고 자주 가던 커피숍도 골라가게 되는 나름 까다로운? 입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바리스타 수업이 마감되고, 지금은 먼 길은 나설 땐 바쁘지만 꼭 커피를 내려서 다니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커피에 대해 배우고 싶고 계속 커피를 좋아할 것 같은 저의 짧은 소감이었습니다~~

주민 서윤정





태평동

1. 꿈을 펼쳐라	66
2. 마을 만들기	70
3. 숲 이야기	74
4. 재미있는 놀이	85
5. 마을 이야기	95

① 여성이 꿈꾸면 마을이 달라진다.



**"엄마가 되어 보니 유모차가 다닐
세상의 길들은 모두 울퉁불퉁하네요!"**

태평동의 다섯 여자가 뭉쳤다!!

이 젊은 엄마들은 1살~ 7살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심지어 평소 다니던 길도 너무 울퉁불퉁하게 느껴진다. 유모차로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가 흔들 흔들 다칠 것만 같다. "분명 이런 길들은 유모차를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것 일거야!" 하고 생각한다.

좁은 골목에 누가 사는지..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 저 애는 왜 울고 있을까? 울음소리가 우리 아이 또래 같은데... 바로 뒷집이어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보고 산다. 길에서 마주쳐도 매일 듣는 그 아이인 줄 모를 거다. 가까운 이웃을 두고도 멀리 사는 선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아이 키우기, 남편 이야기, 사는 이야기들을 나눈다.

"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혼자였다면 마을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어린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어 '예전의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웠지?' 하고 생각해 보니 하루 종일 혼자서 아이랑 집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바쁘면 옆집에도 맡기고 옆집언니가 업고 나가 놀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안아주고 심지어 젖도 먹여주고 뭘 먹을 때면 늘 나눠서 먹이고 키우지 않았던가? 혹여 잘못 하는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 누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새끼마냥 혼도 내주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며 결속하고 보호했던 힘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지는 않았던가!! 허나 지금은 너무도 잘게 쪼개어진 도시의 파편이 되어 쉽게 넘어갈 일도 혼자 끄꿍 대고 있지는 않은지..



"엄마들이 힘을 모아 무엇이라도 해보자"

2014년 4월 태평 4동에 마을커뮤니티 따숨이 문을 열었다. 성남 여성회 수정지부 회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마을커뮤니티 따숨에서 여성들은 우쿨렐레 모임, 역사 공부하는 어른 모임, 아이와 함께 역사 체험가기, 동화 읽는 어른모임 등을 만들며 조그마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마을 만들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모인 네 명의 젊은 엄마와 한명의 아가씨(!)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매일 울기만 해요.. 몇날 며칠을 이렇게 울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 나만 생각하던 삶의 틀을 바꿔 우리를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변화를 가진다면 언젠가 우리 사회도 바뀌겠지요? 아이를 생각하면 좋은 음식, 좋은 옷도 중요하지만 살아갈 사회를 반듯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때도 있을 테니까요!"

<골목골목 웃음소리 들리는 태평동 마을만들기>

는 이렇게 소소한 희망을 품은 여성들의 바람과 꿈, 실천의 결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2 마을을 꿈꾸는 무한 상상



굽이치는 골목길 사이로 삶, 애환, 웃음!

우리 동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보라 하면 성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 첫 번째로 "평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다.

한 초등학교 동창은 성남에서 나고 자라 원래 세상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줄 알았다고 했다.



다른 도시를 가보고 비로소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태평동은 1970년대 성남시가 형성되면서 초창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에 나무를 베고 민둥산위에 20평씩 그어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굽이치는 골목길 사이로 사람들의 눈물과 애환 웃음이 묻어나는 곳이다. 주민의 거의 대부분 이주를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게 살아온 사람들은 30~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교육, 문화, 주거, 주차 등 제반 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 도시 재생) 열악한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한다.

사람이 있는 마을을 상상하다!

성남문화재단에 신청서를 내고 용감하고 젊은 이 아줌마들은 무려 20시간이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리 딱딱한 건 아니었고 모둠으로 우리 마을을 그리고 상상하고 계획을 잡는 일이었다. 계획서 쓸 때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 지는 느낌이었다. 일단 마을 지도 그리기... 생각보다 우리 마을에 뭐가 있는지 잘 알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나?

집에서 학교 가는 길, 집에서 회사 가는 길, 가끔 관공서 가는 길 시장가는 길, 병원 가는 길... 아무리 가까워도 내 관심사가 아니면 100리 밖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머리를 쥐어짜며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우리 동네에 숲대, 민예총, 문화숙과 같은 문화예술단체, 영장산이라는 멋진 자연환경, 성남 사람들은 잘 모르는 봉곡사, 망경암과 같은 문화재도 있었다. 초등학교도 두개나 있고 예전 시청이었던 자리에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넓고 쾌적한 시민사랑방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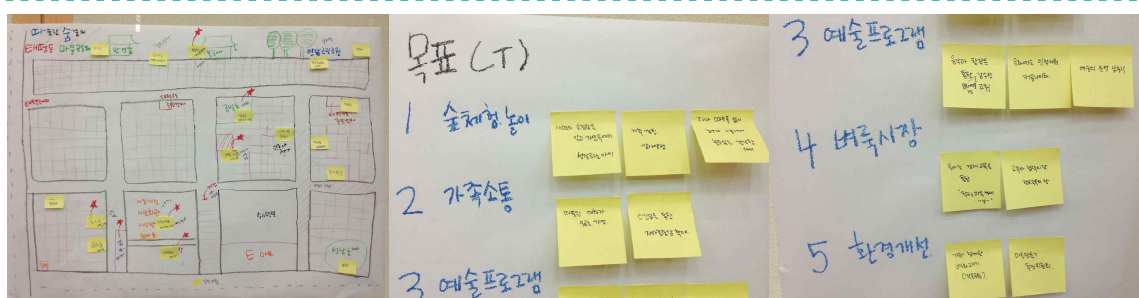
새로 지어 조그만 공연과 모임을 할 수 있는 주민교회 태평동락,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든 구시청 아래 분수공원 까지도 늘 딱딱하고 좁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활동할 만한 자원들이 많았다.





이 모든 것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내면 참 좋겠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수치적으로 설명할 때 마을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며 육아와 일을 병행 하는지, 얼마나 많은 아빠들이 이 골목길을 올라 다니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이들은 이곳에서 언니, 형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며 다시 오지 못할 추억을 쌓아 가는지... 노인들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젠 마을의 모든 것을 활용하고 공유해 문화 예술을 통해 교류하고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장소를 고민한다.



① 우리마을에 무엇을 할까?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
그것은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

마을 만들기는 마을을 잘 아는데서 시작한다. 태평동은 벌써 8년 전에도 성남문화재단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곳이다. 그 때는 전문 팀이 들어와 마을 신문, 방송국도 만들고 벽화도 그리고 골목 미술관 이라는 사업도 진행해 아직도 그 그림이 곳곳에 남아있다. 외부에서 들어와 하다보면 사업기간이 끝나면 마을 만들기도 끝난다는 점이 아쉽다. 아직 한울신문은 계속 되고 있지만 자생적인 마을 모임이나 마을 만들기로의 명맥은 잠시 멈춰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마을 만들기에 함께 한 다섯 명 중 네 명은 성남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고 세 명은 태평동에서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1회성 사업이 아닌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그 무엇이 아니더라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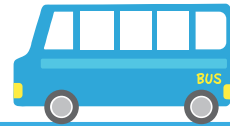
벽화 그리거나 마을 꾸미기도 좋지만 일단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다. 마을 어딘가에 뭔가를 그리고 짓고 꾸미고 하는 일은 나중에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여 해도 될 것 같았다.

우리는 태평동을 금빛초를 사이로 아래와 위로 나누어 아랫부분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마을 커뮤니티 따숨도 아랫부분에 있었고 젊은 엄마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다 보니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가는 곳이 더 낫겠다 싶었다.

이 동네는 초등학교(성남초, 금빛초)가 두개가 있다. 두개의 초등학교를 합치면 정원이 2,000여명이 된다. 최대한 학교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하였다.

성남문화재단의 교육을 받으면서 막연한 일들이 점점 목표와 비전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올까? 하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좋다는 것은 다 욕심을 냈다.
마을 숲 체험, 운동장 전래놀이, 벼룩시장, 어린이 경제 교육, 엄마 숲, 놀이 강사과정, 비폭력 대화, 가족 밴드



벽화그리기, 비폭력 대화, 가족캠핑 등 하고 싶은 일 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일단 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 지금 필요한 것 등의 순서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다.

마침내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이제 주변에 협조를 구하고 강사섭외, 장소섭외 등등 앞으로 할 일이 많구나!!



- 사업명 : 골목골목 웃음소리 들리는 태평동 마을 만들기
- 비전 : 아이들이 뛰놀고 생명과 문화예술이 숨쉬는 행복한 숲골

첫 번째 목표 : 아이들이 뛰노는 생명이 있는 우리 마을

-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
- 지속가능한 강사양성
- TV나 스마트 폰 없이 친구와 소통하며 놀 수 있는 건강한 아이

두 번째 목표 :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는 마을

- 음악과 창작을 통한 문화예술 감수성 고취
- 문화예술 인적자원 커뮤니티
- 예술의 문턱 낮추기

세 번째 목표 : 자투리 공간 환경개선으로 정보와 교류가 있는 마을 만들기

- 골목 안에 자투리 공간 꾸미기
-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 가족 프로그램



<이 과정에서 어쿠스틱 가족밴드 만들기는 강사섭외를 해놓고도 악기문제, 모집 문제 등이 걸려 최종 기획안에서 제외가 되었다.>

태평동에 위치한 주민교회에서 마을 영화제를 기획했다. 몇 년전까지 여름밤에 금빛초에서 했던 마을영화제를 계승하던 차원이었다. 야외에서 돛자리 깔고 맥주라도 마시면서 하면 더 좋으련만.. 날씨도 쌀쌀해지고 아늑하게 의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개봉된 영화가 아닌 재일 조선인 이야기를 담은 <60만번의 트라이>공동체 상영으로 결정했다. 흔히 보기 힘든 특별한 영화를 보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다. 부디 많이 오시길!!!

1월 10일
 1월 11일

메들리마을에서 놀자!



영장식 숲길



이벤트

1월 10일(토요일) 오전 10시~12시
 1월 11일(일요일) 오전 10시~12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2시~4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2시~4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4시~6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4시~6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6시~8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6시~8시

문의: 유진 박 (02) 459-3540

장미마을 풍요리 숲길 일과 일과제
 1월 10일(토요일) 오후 2시~4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2시~4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4시~6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4시~6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6시~8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6시~8시

문의: 유진 박 (02) 459-3540

한글로 산다



종종놀이



이벤트

1월 10일(토요일) 오전 10시~12시
 1월 11일(일요일) 오전 10시~12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2시~4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2시~4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4시~6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4시~6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6시~8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6시~8시

문의: 유진 박 (02) 459-3540

종종놀이

1월 10일(토요일) 오후 2시~4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2시~4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4시~6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4시~6시

1월 10일(토요일) 오후 6시~8시
 1월 11일(일요일) 오후 6시~8시

문의: 유진 박 (02) 459-3540



③ 태평동 마을 만들기 두근두근 시작입니다. ^^



프로그램 확정이 끝나고 홍보물 제작, 플랭카드 제작에 들어갔다. 아무래도 플랭카드가 붙어야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된다. 금빛 초, 태평4동 주민센터 근방, 성남초, 수진초에 붙이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팀원들은 모르는 전화만 와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단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차 각 교실별로 사람들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명 한명 모인사람들은 천금보다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개강 날짜가 되었는데도 사람이 모아 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착한경제교실은 고학년 수업에 평일 오후라 그런지 문의 전화가 단 한통도 오지 않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팀원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할지, 폐기하고 다른 수업으로 교체를 할지, 고민하다가 과감히 폐기를 결정했다.

지금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것 보다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해 어른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단 주민들을 많이 모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더 요구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강좌라고 짜 놓아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만족에 그칠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마을 만들기는 아닐 것이다.



숲 이야기

1 숲에서 흙강아지가 된 아이들



첫째날, 새로운 만남

숲에 가니 평소에 그냥 지나 다녔을 길도, 길쪽 길쪽 늘어서 있는 참나무도 시원한 바람도 바람 불면 좌르르 옆으로 쓸리는 들풀도, 아주 작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들꽃도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주 멋진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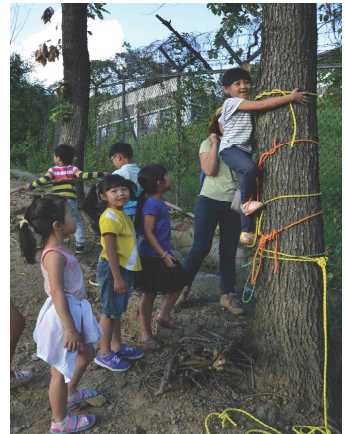
숲에서 생명을 만나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선생님과 처음 만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책 한권 읽고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작 되었단다> 첫 시간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아이들도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라 서로 쭈뼛 쭈뼛 합니다. 형제, 자매, 남매끼리 어울리네요~

하지만 곧 선생님이 꺼내는 밧줄을 보고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것일까?", "왜 나무를 묶는 거지?" 커다란 눈을 데굴데굴 굴리며 숲에 온 아이들은 모든 게 신기합니다. 내 나무를 정하고 나무 이름도 지어주고 나무끼리 밧줄로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깐요..

오늘은 첫날이라 비교적 가볍게 산이랑, 나무랑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밧줄을 나무에 묶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서 올라가는데 처음 이라 무서워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 뽕뽕 잘 올라 다닐 수 있을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밧줄을 엮어 만든 해바라기 그네를 돌아가며





타 보았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주욱 당기면 그녀가 스스로 올라가네요. 와! 신기하다.

한번더 타겠다는 아이, 무서워서 안타겠다는 아이, 산이 너무 좋아 집에 안가겠다는 아이, 아이들도 각각입니다. 집에 안가겠다는 아이를 겨우 달래서 내려 왔네요 ㅠㅠ 하지만 올라 갈 때와는 사뭇 다르게 아이들의 표정이 더욱 밝아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산에 오면서 복장을 잘 점검하지 않아 반팔, 반바지 입고 올라가는 바람에 모기에 엄청 뜯겼어요!! 복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 겠군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둘째날, 나무야 나무야 뭐하니?



나무 열쇠고리 만들기



두 번째 숲놀이 시간에는 나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예쁜 파랑 모자를 쓰니 잘 어울리네요. 루페도 목에 걸고 신이 났습니다. 조그만 이파리도 루페로 보니 엄청 커 보이네요! 꽃도, 나뭇잎 뒷면도, 흙도 돌도 다 커다랗게 확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올라가면서 나무와 이파리에 대해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조그만 정자에 도착했어요. 여름의 끝,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정자에 앉아 나무에 열쇠고리 그리기를 했어요. 각자 생각하는 멋진 그림들을 그려 놓느라 시간이 걸리네요. 정성스럽게 그린 다음 나무 사이에 줄을 묶어 전시를 했습니다. 산은 우리가 평소 다니는 포장길과는 다르게 울퉁불퉁합니다. 맨 앞사람이 인도하고 뒷사람들은 눈을 감고 앞사람의 어깨에 의지해 걸어가 보았습니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미세한 몸의 감각들이 스물 스물 살아나네요. 발끝에서 다리를 지나 어깨에서 머리까지.. 눈을 감고 가니까 엄청 무섭기도 하고 도착하고 나서 돌아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평소에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미처 몰랐네요. 숲에 오니 천지가 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주어진 자유시간에 다들 엉덩이를 치켜들고 땅위를 살피느라 바쁩니다. 재미도 잡고, 무당벌레도 찾고, 예쁜 들꽃도 찾기 위해서지요.. 흙강아지가 되어 노는 아이들을 보니 엄마들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늘 아이를 회색 도시에서 밖에도 못나가게 하고 키웠는데.. 그제 아이들이 흙 위에서 재미잡고 논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 밀려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아이들은 껍이나 친해진 모양입니다. 다섯 살 동생에게 아까 주운 꽃을 보여주는 언니.. 이렇게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있군요.

오늘은 진수가 심통을 잔뜩 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에 자리도 좁고 덥고 산에 잘 안다녀 본 아이라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나오길 바래 봅니다. ^^

② 숲에서 피자 만들기 & 도토리 팽이 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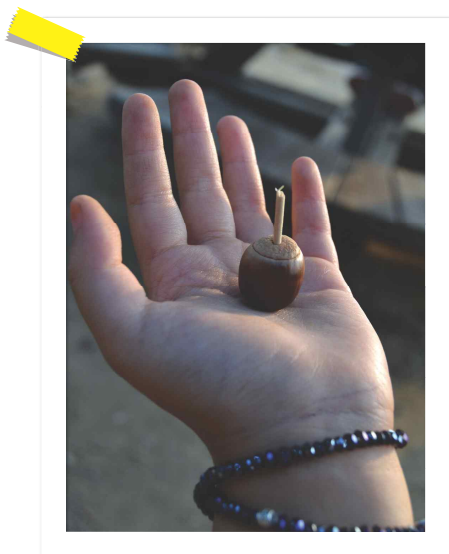
숲 속 친구들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자!!

선생님은 나뭇잎, 도토리, 꽃 등 주변의 것들을 이용하여 숲속의 친구들에게 피자를 만들어주자고 하셨습니다. 잡풀로 도우를 만들고 그 위에 나뭇잎, 도토리, 돌맹이 등을 얹어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남자 아이들은 토핑으로 엮을 도토리를 구하기 위해 저 멀리까지 갑니다.
여자 아이들은 앉아서 돌로 풀과 꽃을 찢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수 만년 살아오면서 유전자에 콕 박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올해는 유난히 도토리며 밤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하네요.
다음은 도토리를 주워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이쑤시개를 끼워 도토리팽이를 만들었어요.



진수가 "내 팽이 잘 돌아간다!" 하니까 서윤이도 "야! 니 팽이만 잘 돌아가냐? 내 팽이도 잘 돌아간다!" 하면서 옥신각신 하더니 힘으로 밀어붙이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겨우 어르고 달래어 진정을 시키니 아이들은 슬슬 탁자 아래로 내려가 땅으로 경기장을 넓히더니 도토리 팽이 경기장을 만들기 시작하네요.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데 열심히 땅을 고르고 돌을 쌓아 만든 경기장이며 주인을 만나 신나게 구르는 도토리 팽이가 반짝 반짝 빛납니다.

아이들은 역시 놀이 천재네요^^ 다음엔 싸우지 말고 놀자~~



③ 숲내를 흐르는 수많은 생명과의 만남

숲의 생명과 만나다.



탄천은 용인과 성남지역의 분당, 판교를 거쳐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사이로 빠져 나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의 지류천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숲을 구워 이 곳으로 옮겼다고 해서 검내라고 불리웠으며 지금은 숲내, 탄천으로 불리우고 있다. 90년대까지 생활 하수의 유입으로 급속도로 수질이 악화되었으나 2009년부터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주변 경관과 수질이 좋아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찾아와 서식지가 되고 있다.

숲놀이 4주차는 성남 가장자리를 유유히 흐르고 있는 탄천으로 향했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곳 인공습지에서 매주 토요일 생태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 선생님이 그 어느 곳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숲에 갔다가 탄천으로 오니 바람도, 공기도 싱그럽습니다. 몇 년 전까지 악취가 진동하던 곳이었는데 오염 시키는 것도 다시 맑게 하는 것도 사람의 역할이 참 큼니다.

건너편에 서울 공항이 있어서 계속 비행기가 오가고 있고 가끔 새떼를 쫓는 총소리도 들려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조용하기만 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곳입니다.

- 1 더하기 1은 더듬이
- 2 더하기 2는 잠자리 날개
- 3 더하기 3은 개미 다리
- 4 더하기 4는 거미 다리
- 5 더하기 5는 안녕하세요!!





저 멀리 오리 꺅꺅 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뜰채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온통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뜰채를 물속에 넣고 구석구석 저어서 물고기나 잠자리 유충들을 한번 잡아 봅시다!! 했더니 일제히 와~!!! 하고 달려 나갑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 올상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조금 있으니 다들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법 큰 붕어도 잡히고 물자라, 물방개, 잠자리 유충, 장구벌레, 버들붕어 등이 앞 다투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한 마리 한 마리 잡힐 때마다 소리치며 뛰어 옵니다.

"선생님! 잡았어요!!!"

"잉잉 선생님!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고 다섯살 해찬이가 울먹이자

일곱 살 형아인 서윤이가 데리고 가서 한 마리 잡아 줍니다.

잡은 생명들을 쟁반위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이 작은 습지안에 엄청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네요^^

뜰채 하나 쥐어주었더니 두 시간 내내 열심히도 잡고 다닙니다. 오늘도 겨우 가자 가자하며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오늘은 엄마들이 함께 와서 아이들 노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엄마들이 더 좋아 하네요^^



④ 자연에서 뛰어 노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고 여유가 있어지나 봐요!

지난 수업에 이어 습지를 너무 재미있어 해서 이번에도 습지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관계로 주로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를 해봅니다. 도꼬마리 다트 던지기, 씨앗 관찰, 단풍나무 씨앗 모양을 따라 종이로 만들어 날려 보기 술방울 폭탄 만들기.. 그 동안 진수, 서윤이, 서준이는 몇 번을 티격태격 하며 안경도 부서뜨리고 하더니 어느새 누구보다 사이좋은 동네 형아, 동생이 되었습니다.

어릴적엔 부모님보다는 동네 언니, 형들에게 배우는게 어찌면 더 많은 지도 모릅니다. 또래관계에서 사회성도 배우고 규율도 배우고 힘을 조절하는 능력도 훈련 됩니다. 부모님은 다 받아주고 마냥 이쁘기만 하지만 친구나 또래 사이에서는 지켜야할 선과 책임,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아이들은 지금껏 부모님이 다 받아주는 어린 아이에서 대자연에 풀어 놓아진 어찌할 바 모르는 생명들이 되어 아웅다웅, 티격태격 해오면서 빠른 과정을 거쳐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일도 기록치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싸움을 포기 하지 않고 이겨 내기를 바랄뿐이었죠. 어느덧 아이들에게 찾아온 평화가 신기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은 단 5주만에 내가 형이니까.. 내가 동생이니까.. 하며 서로를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 노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고 여유가 있어지나 봐요!" 아이들의 과정을 지켜보던 김지선 팀장의 한마디 ^^

반팔을 입고 만났던 아이들은 어느새 잠바까지 입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가을에도 겨울에도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만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12월이 된 지금까지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구요 ^^ 이제 싸울 만큼은 다 싸웠는지 숲놀이 때





싸움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밧줄로 그네를 만들어 태워줄 때도 아이들은 10번을 세면서 타고 다음 사람을 위해 바로 내렸습니다. 동생이 타면 서로 끌어 올려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래라 저래라 교훈적인 가르침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저 함께 놀고, 기다려 주고, 바라봐 주고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했고, 서로 싸우고 그 과정에서 합의했습니다.

서로 조율하는 능력이 과정에서 많이 자랐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멀리서 들꽃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네요.

갈갈갈, 하하하, 히히히 요 시끄러운 아이들이 올 겨울에는 또 어느 산을 누비고 있을까요?

자연은 말없이 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 줍니다.





⑤ 두근두근 우리엄마 숲 강사 되기 ^^

숲 체험 강사단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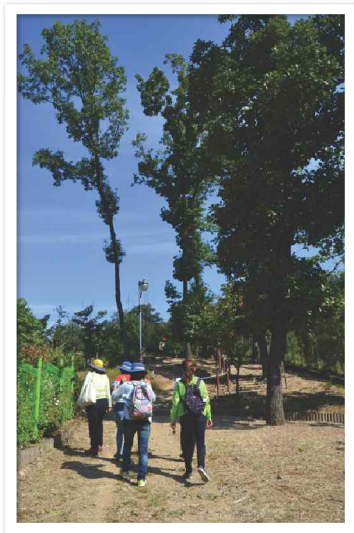
아이와 아차산까지 숲 놀이 다녔던 엄마 두 분, 아이가 곤충을 좋아한다는 엄마들, 아이들 다 키우고 본인이 좋아서 배우고 싶어하신 엄마, 교회 청소년 선생님인데 배워서 아이들이랑 해보고 싶다는 분, 이렇게 모여 성남 환경운동연합 김현정쌤에게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엄마들은 성남에서 10년, 많게는 30년 살았는데 성남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네요. 참엔 나무, 풀 같은걸 슬라이드로 보고 이름을 외우나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마을의 역사와 유래, 도시환경, 강과 산 등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 결합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 강과 산 등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 결합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성남을 흐르는 하천, 산, 성남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구시청앞 이마트 앞 도로가 독정천이라는 하천이었는데 그 위로 복개공사를 했다 하네요~ 단대천은 알았어도 독정천은 처음.. 숲에서 나무만 보는 것이 생태 수업인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우리 마을의 역사에서 자연환경, 숲과 천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동물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자긍심도 생기고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성남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이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다, 자긍심 보다는 살짝 위축되는 마음 말이에요. 김현정 선생님의 이번 강연으로 우리 고장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되어 아이를 키워서 감수성이 풍부해 진걸까요? 생명을 품고 키운 여성의 눈으로 보니 들꽃의 작은 흔들림에도 걸음을 멈추고 감탄사를 쏟아내기 바쁩니다. 숲은 아이들만 좋아하는게 아니군요. 어른들도 한없이 감탄하면서, 숨 한번 크게 쉬고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세번째 시간은 가을이 되어 숲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씨앗 관찰을 했습니다. 씨앗은 종류도, 모양도, 살아가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네요. 인간이 영리하게 거친 자연을 헤치고 살아온 만큼 식물도 참 영리합니다. 씨앗을 퍼트리기 위한 무수히 많은 작전들을 펼치니까요. 산에 가득 있는 씨앗과 열매들을 모아 만다라 꾸미기를 해보았어요.

지난 주 왔을 때만 해도 시원한 정자가 이전 춥게 느껴지네요. 씨앗 찾아 여기 저기 다니다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열매 식탁을 발견했습니다. 새들의 점심식사인가? 아기자기 예쁜 모습에 엄마들은 또 한번 감탄사 연발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배우러 왔는데 우리가 정말 힐링 되네요^^

씨앗과 열매를 모아 만다라 꾸미기를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한장 만다라를 색칠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하던데... 엄마들은 정성스럽게 그리고 풀로 붙히고 하면서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매력이 넘치는 작품이 나오네요^^

"와!!! 너무 이뻐요! "

"이 색깔 좀 보~ "

"어쩜 이렇게 이쁜지..."

보슬 보슬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선생님! 비오는데 오늘 수업 하나요?" 문자를 보냈더니 "비오는 날 하면 더 운치 있고 좋습니다." 하신다. 그래서 모두 장화신고 우산 들고 탄천에서 만났습니다. 지끈을 이용해 잠자리, 애벌레도 만들어 보았구요~ (생각보다 무지 어렵습니다.) 습지에 내려가 부들이나, 수생 식물 단면도 잘라보고 우리가 자연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들 잎으로 배를 만들어 모두 걱정거리 하나씩 배에 담아 보냈습니다. 저쪽으로 쭉 물길따라 가거라!! (내 걱정거리도 모두 싣고 멀리 멀리!)





① 놀이는 교육의 오래된 미래

30-40대 엄마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는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밥 먹으면 나가 놀기 바빴다. 학교가 끝나면 하루 종일 얼음뎡, 고무줄, 땃따먹기, 오징어 등 운동장에서 놀고 집에 가면 밥먹고 아홉시도 못되어 꿀아떨어지고 ^^



요즘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무척 낮아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밖에 나가 노는 어린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아이들은 놀지 않는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학원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아이들. 텅 비어 있는 운동장.. 언제부터 우리 주변에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졌을까? 놀지 않는 아이들은 크면 어떤 어른이 되어있을까?

태평 4동에 초등학교가 두 개나 있다. 두개 정원을 합하면 2천여명..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것일까? 마을 커뮤니티에서 만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친구들이 다 학원으로 가니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있는 학원으로 보내야 한다면.. 그러면서 한편으론 아이가 땀 흘리고 놀면서 웃으며 신발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우린 참아줄 수 있을까? 반문한다.



어린이 운동장 놀이를 시도해 보기 위해 우리는 전래놀이 전문강사 고갑준 선생님을 초청해 학부모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에서 뭔가 반향을 불러 일으켜 보고 싶었다.

금빛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회장님을 만나고 강사 섭외를 하고 홍보지를 학교 전체에 발송하고... 날짜는 다가 오는데 과연 부모님이 몇 분이나 오실지 불안 했다.

아이들이 나 어릴적 처럼 뛰어 놀았으면 좋겠지만 막상 놀기만 한다면 불안한 것이 현실이리라. 이 한 번의 강연을 통해 뭔가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에 들어갔다.

아이들에게 처절한 실패는 엄청난 학습이 됩니다. 해보고 왜 안 되는거지? 궁리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실패하고 일어설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전래놀이입니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전래놀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한명이라도 다음단계로 진출하면 다음 판에선 모두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살신성인해서 우리팀 모두를 구하는 방식은 서양놀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합니다. 여기서 나 혼자 잘나서 이기면 된다! 가 아닌 함께 사는 공동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도 없고,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놀이가 바로 전래놀이입니다. 꼭 이겨야만 재미있고 보상을 받아야만 행동 하나요? 흔히 교실이나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스티커를 주고 선물을 주어야 착한 행동을 할까요?

인간은 뜻, 의지가 내면에 자유의지로 형성되고 재미가 있으면 하지 말라 해도 행동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 노는 세상에 희망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서로를 생각하며 자랍니다.

나 혼자 잘난 아이로 키워서 어디다 쓰시렵니까?

과정을 즐기며 재미를 찾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힘은 바로 놀이에 있습니다, 과정을 즐긴 아이는 큰 그릇으로 성장합니다. 큰 그릇엔 무언을 담아도 담겨지지요.. 우리전래놀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아이로 성장 시킵니다^^

아이들이 놀아야 세상이 건강해지고 마을이 살아납니다.

2014. 9. 18 목 고갑준 놀이 연구가 강연 중



② 아이들이 노는 마을에 희망이 있다

놀이는 처음 만나 낯선 아이들의 경계를 삼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

맞잡은 손에서 마주보는 눈빛에서 서로를 향한 소중함이 솟아 오른다.

“있잖아! 우리 같이 노니까 참 재밌다”

고갑준 강사의 <놀이는 교육의 오래된 미래> 강의를 들으며 팀장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처음에 놀이강좌를 기획할 때는 20~30명 정도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모집인원이 저조하여 10명 내외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은 재활용을 이용한 복주머니 만들기를 진행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여기에 고소한 땅콩을 듬뿍 담아 주었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놀이보다 만들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였는데 만들기만 할 수는 없지요!! 땀 좀 흘리며 놀아 볼까요?? 복주머니 만들기를 마치고 몸으로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닭과 여우 게임 아시나요? 닭과 여우 한명씩 뽑고 아이들은 울타리가 되어 닭을 지키고 여우는 밖에서 울타리 사이로 닭을 잡으려고 합니다. 밑으로 들어오면 재빨리 아래를 막고 위로 들어 오면 굳게 손을 잡아 닭을 지켜야 하지요. 처음 만나 어색했던 아이들도 손에 손을 굳게 잡고 닭을 지키기 위해 눈을 빛냅니다. 솟대 정병인 선생님은 특유의 익살과 재미있는 몸짓과 표정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합니다.

웃음이 터진 아이들은 계속 여우를 막아 내면서 까르르 까르르~~

지켜보던 엄마들도 일주일치 웃음을 다 웃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

"뭔가 흠을 뵈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놀아 본게 얼마만인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깔깔 웃던 아이들은 어느새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언니 오빠들도 동생들에게 호감을 보이며 너는 몇살? 이름이 뭐야? 친절하게 묻기도 하고.. 역시 놀이는 아이들의 경계를 삼시간에 허물어 뜨립니다. 오늘도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2014년..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사회적 인프라는 늘어났다. 마을 곳곳에 블록 방, 실내 놀이터, 모래 놀이터 등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놀이공원, 아쿠아리움을 연회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 놀았던 것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노는데 비용이 들고 점점 비싸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더 불행해지고 그렇다고 더 똑똑해 지지도 않은 것 같다. 빠른 속도로 수백 가지 놀이들이 없어지면서 교실붕괴도 함께 찾아오고 소아정신과 상담도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닐까?

아이들에게 놀이를 찾아주는 것이야 말로 어른이, 마을이, 학교가 해 주어야 할 몫입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돌멩이 하나, 제기 하나,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은 수십가지 놀이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제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색지를 엽전에 끼워서 정성스럽게 제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봅니다. 널판지로 몇 개 맞춰 올리나 내기도 해보고 차는 방법도 다양하게 시도 해보구요~ 또 발등으로, 가슴으로, 어깨로, 머리 위에 얹어 빨리 가기 놀이도 합니다.

와!!! 제기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놀이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해! 노는 방법도.. 엄마들의 한마디가 울려 퍼진다. 조금만 배우면, 생각을 달리해보면 많은 놀이들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닐까요? 혼자 놀면 재미가 없잖아요 ^^

몇 가지 놀이 방법과 약속한 시간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엄마들에게도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3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다, 행복한 아이가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



비석치기 해보셨나요?

비석치기 하려면 망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만나 일단 놀이를 결정하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내 망을 찾습니다. 잘 세워지고 판판한 관찮은 말을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이들은 잘도 찾아냅니다. 요즘엔 돌로 된 망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쉬운 대로 MDF로 만들어진 비석치기 세트를 사서 나만의 망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인펜으로 알록달록 꽤 정성스럽게 그려 넣었네요

비석치기 순서

1. 던지기 : 선 채로 그냥 던지기, 한 발 뛰어 던지기, 두 발 뛰어 던지기, 세 발 뛰어 던지기
2. 세 발 뛰어차기 : 망을 던져놓고 세 발 뛴 다음 네 발 째 차서 쓰러뜨린다.
3. 발등 : 망을 발등 위에 올려놓고 가서 쓰러뜨린다.
4. 발목 : 망을 발목 사이에 끼워 놓고 강충강충 뛰어가 쓰러뜨린다.
5. 무릎 : 망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걸어가 쓰러뜨린다.
6. 가랑이 : 망을 가랑이에 끼우고 걸어가 쓰러뜨린다.
7. 배 : 망을 배 위에 올려놓고 걸어가 쓰러뜨린다.
8. 손등 : 망을 손등 위에 올려놓고 뛰어가 쓰러뜨린다.
9. 신문팔이 : 망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가서 쓰러뜨린다.
10. 어깨 : 망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가서 쓰러뜨린다.
11. 목 : 망을 어깨와 목 사이에 끼우고 가서 쓰러뜨린다.
12. 머리 : 망을 머리 위에 올리고 가서 쓰러뜨린다.
13. 장님 : 돌을 던져 놓고 눈을 감고 걸어가서 망을 찾아 눈을 감은 채로 던져 쓰러뜨린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아이들은 하나의 망은 세워놓고 또 하나의 망은 던지고, 세발 뛰어 차고, 발등에 올려 가서 쓰러뜨리고 발목 사이에 끼워 강충 강충 가서 쓰러뜨리고 순서대로 올라가서 나중엔 머리 위에, 그 다음은 눈을 감고 던져 쓰러뜨립니다. 발등에 올려놓고 가다가도 발등의 망이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인내, 체력을 필요로 하는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인내와 체력이 키워지겠지요.. 이렇게 좋은 전래놀이 어른들은 누렸지만 아이들은 모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둘씩 짝을 이루면 내가 못해도 친구가 잘 하면 같이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망을 그리고 나서 쭈뼛 쭈뼛 비석치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 멀리 있는 비석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비석치기는 두 팀으로 나누어 했는데 보름이와 진수네 팀이 이겼습니다. 진 팀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흑흑 사실 전래놀이는 매일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더 날렵해질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고가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닌데 놀 팀을 나누어 성패를 가르는 서양식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자신이 졌다는 걸 받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졌지만 패배감 보다는 다음에 또 더 잘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것이 전래놀이입니다.

오늘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그냥 한번 체험한 것 뿐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래 놀이가 좋다고 하니까 전래놀이 학교에 가서 한번 씩 체험해 보는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처럼 시간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구선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다음엔 뭘 배우나요?" 한대구요.. 그냥 아이를 푹 빠져 놀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몸이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규칙을 함께 세우고 이럴 땐 이렇게 하자!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함께 대응하기도 합니다. 운동장에서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이 땀을 쏘옥 흘리고 다음엔 더 잘 놀기 위해 궁리하고 이번에 저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은 꼭 오늘보다 더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놀이가 아닐까요? 이런 건강한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멋진 어른들로 자라날 것이라 믿습니다.



4 엄마도 놀이를 배우자!!

우리엄마 놀이 강사 과정을 함께 하기로 기획했던 이유는 아이들 놀이 수업에 교사 지원이 되지 않아도 엄마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는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놀이 강사 과정은 사실 다른 강좌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좌였습니다.

엄마들이 아직은 아이들과 무엇을 하고 놀까? 보다는 무얼 더 가르칠까?를 생각 하는 건 아닌지... 금빛초에서 엄마 강좌를 했지만 더 이어서 놀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신청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우리 아이 수학 교육이나 독서교육을 할 걸 그랬나?" 하고 팀원들은 농담처럼 이야기 했지만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그래도.. 마을에서 아이들 놀이를 복원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작은 씨앗 하나 뿌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한번 시작해 보자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놀이 수업 시간에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직접 놀기 등의 구성으로 진행 되었는데요. 대나무를 이용한 솥대 만들기, 제기 만들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과 실내에서 놀 수 있는 놀이 실뜨기, 산가지 놀이를 배웠습니다. 제기도 하나씩 만들어서 각종 기발한 방법으로 노는 방법을 배웠구요.. 전래놀이 선생님은 각 지방의 놀이를 다 집대성해서 그러신지 보도 들도 못한 방법들이 쏟아집니다. 엄마들은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놀다보니 본인이 푸욱~~~ 빠져서 왕년에 놀았던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댄 이렇게 차고 놀았어!"

"그래? 우리 시골에선 이렇게 했는데"

"차다 잡으면 첨부러야!"

"이상하다~ 나 진짜 잘했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굳었지?"





아~!!! 진정 놀아 본 엄마들의 수다란~~이런 것이예요.. 전국 각지에서 놀던(?) 엄마들이 모이니 서로 다른 법칙을 이야기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숫대를 만들어 놓고 보니 만들었던 의미나 소원 같은 걸 같이 말하면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것 같아요. 아이들과 만들면서 하늘에 빌고 싶은 소원이 뭔지 이야기도 나누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공구 다루기가 무척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보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요? 마을축제 때 엄마들이 이런 부스를 맡아서 아이들 체험하게 하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공구는 역시 어려워.. 아빠들을 시켜야 하나..?

죽마고우라는 옛 말이 있지요?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았던 옛 친구라는 뜻인데 실제 죽마를 만들어서 타보았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중심을 잡으려면 정말 산으로 들로 쏘다녀 단련된 허벅지가 아니면 도저히 올라 탈수가 없네요. 한창 아이들이 놀던 시절의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다면 정말 체력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체력은 되어야 감기도 안 걸리고 튼튼하지요^^ 우리 너무 애들을 약하게 키우고 있나봐요. 그래도 도란 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조물락 조물락 만들기도 하고,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 쓰면서 승부욕에 타올라 뛰어 노니까 재밌네요~~ 신나게 달려 다니다가 수업 끝나고 에구 에구~~ 하면서 허리를 짊으며 돌아갔다는... 태평동 전설이 ^^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천연염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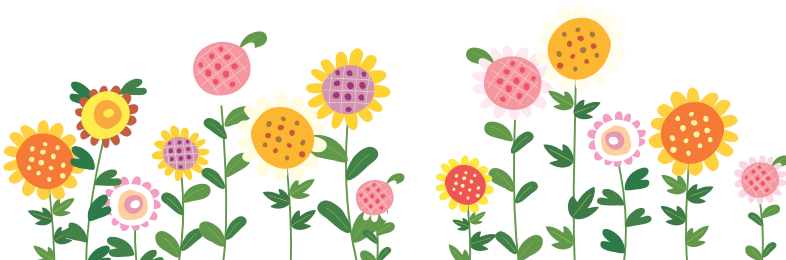
오늘은 소목과 치자로 주물 주물 해서 아름다운 색과 무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고무줄로 칭칭 묶고 조물 조물 해주면 쉽고 간단하게 나만의 손수건을 만들 수 있네요.

"난 이런거 진짜 못해!"

"손재주라곤 없어서.." 하던 엄마들도 다 된 손수건을 좌악~ 펼치니 미운 것, 예쁜 것 없이 다 아름다운 모양이 나와 간탄사 연발입니다.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대로, 비뚤면 비뚤 대로 나만의 멋진 스타일이 완성되네요.. 집에서 할 때는 양파껍질로 해도 되고 커피로도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군요 ^^

아이들에게 천연 염색으로 미적감각을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① 너에겐 고물~ 나에겐 보물!! 태평동 벼룩시장 이야기

10월 5일 성남 구시청 아래 분수공원에서 골목 골목 웃음소리 들리는 태평동 마을 만들기 우리동네 벼룩시장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파트의 협조를 얻어 선경아파트 모래 놀이터에서 한번, 신동아 아파트에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주말 보다는 주중에 하기를 원해서 주중으로 잡았더니 정말이지 단 한건도 전화도 오지 않네요. 팀원들은 빨리 회의를 열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으로 바꾸기를 결정하고 구시청아래 분수공원으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하기로 결정해놓고 보니 이곳에서 심심치 않게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서 무슨 행사라도 겹쳐 열리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됩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등에 열심히 전화를 해도 이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 관할하는 데가 없습니다. 에고... 주변을 살펴봐도 그날 뭔가 한다는 홍보물이 붙어



우리동네 벼룩시장

있지 않으니 먼저 다행히 회원중에 수진초, 성남초, 금빛초 학부모들이 있어 학부모 밴드방에 올렸더니
속속 참여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붙은 플랭카드를 보고 연락이 오기도 하네요. 22, 23, 24팀
와~ 이제 뭔가 행사가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벼룩시장 당일에는 한쪽에서 달고나와 팝콘을 튀기고 참가자들이 물건을 벌여 놓으니까 멋진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한 바퀴 돌아서 구경을 하고 갑니다.

50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어린 사장님들은 자기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이며 갖고 놀던 손때 묻은
장난감과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심심해 하기도 하지만 내 것을 팔고 싶기 보다는 다른
가게 물건이 구경하고 싶어 좀이 쑹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아빠에게 맡겨놓고 구경 다니기 바쁜 아이들 ^^

지나가는 시민들은 열심히 설명도 듣고 어디서 하는 일이나,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하면 안되냐,
한 달에 한번 하면 안 되냐 하며 열심히 의견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주머니로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으니 마음도 풍요로와 지는 듯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구나!

벼룩시장을 모집 해보니까 플랭카드 달고 사람만 모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돗자리도 증정하고 팝콘, 달고나도 무료 나눔 했는데 꼭 그런 것이 없어도 많이 모일 수 있고 돗자리는 자기
것으로 들고 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 합니다. 우리 내년엔 진짜 자주 해볼까나??



돌아보니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벼룩시장을 위해 고생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속도 안 좋았을텐데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진주팀장, 땀 흘리며 팝콘을 만들었던 지선팀장, 엄청 많은 44사이즈의 (ππ)물건과 아이 악세서리를 챙겨온 명희팀장, 세 시간동안 달고나 만들기에 힘 써준 우리 태평4동 마을신문<한울신문> 6학년 기자들..마지막에 사진으로 찍어놓고 보니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던 성남 여성회 회원들.. 모든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성회 회원과 마을 팀원들의 든든한 밑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벼룩시장이 해보니 참 재미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 모든 물건을 팔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가서는 파는 것 보다 사는 것이 무척 재미있는.. 집에 돌아오자 마자 다음 벼룩시장은 언제 하나고 묻는 우리 딸.. 아마 모두의 마음이었으리라.. 엄마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첫 문을 연 태평동 마을 만들기 <우리동네 벼룩시장>이 태평동의 명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건 다 그 집으로 가고, 저 집에 있는 건 다 우리집에 왔네!"

"물건이 다 500원짜리인데 난 왜 3만원이나 썼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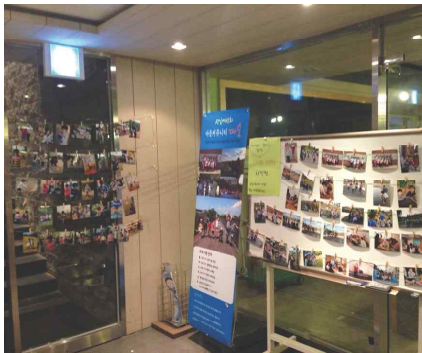
"오!!! 이게 생각보다 참 재밌네요" 하면서 두둑한 쇼핑백을 다시 들고 가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이다.

나에겐 고물, 너에겐 보물이다.





2 태평동 마을영화제 60만번의 트라이..



몇 년 전에 금빛초등학교에서 여름밤에 영화를 상영 했었는데 그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3년간 지속해 오다가 맥이 끊겼는데 마을 영화제를 이번에 시작해서 한번 뿌리 내려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화제를 시작했습니다. 영화 선정을 하는 것이 조금 고민이었는데 평범하게 극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화 말고 좀 다른 걸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흔지 않지만 멋진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화를 고민하던 중 막 개봉을 앞둔 60만번의 트라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화를 접하자마자 바로 이거다!!하는 강력한 느낌이^^ 곧바로 배급사에 문의하고 공동체 상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태평동 마을 영화제 <60만번의 트라이>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남한에서 온 아이가 너는 코리안이 아니고 내가 진짜 코리안이'라고 했을 때 섭섭했을 재일 조선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엄마, 아빠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 운동회 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지금 우리는 찾아 볼 수 없는 모습.. 예전엔 그렇게 나누고 모여서 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해 주신 어떤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젊은 엄마들의 모임이 보기 좋고 신기하다 하셨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뒷풀이 하면서 몇몇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자리도 좋았습니다.

역시 소감을 나누니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본 디테일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가슴이 짝 차오르는 영화입니다. 덩치 큰 녀석들의 해맑은 웃음도 좋았고 선생님 무릎에 안겨 선생님이 아이(여기서 아이란 고3) 배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제자와 선생님 사이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네요. 아이 400명 학교의 운동회에 2,000명의 가족들이 모여 드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운동장의 좋은 자리를 차지 하려고 밤새워 줄을 서더군요. 서로 가족이 된 그들의 삶이 힘들겠지만 관찮게 여겨졌습니다. 비록 일본에서 차별을 받지만 의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노사이드 정신!! 럭비경기를 할 때 서로 팀을 나눠 싸우지만 경기가 끝날 땐 니 편, 내편이 없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 아이들만 무상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국에 사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은 노사이드 정신이 아니라는 럭비부 주장의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편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일본이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제일 조선인 학교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이드 정신으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어른들이 편을 가르지 않고 지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제 입구에 마을 만들기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더 크게 예산을 들여서 축제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축제가 취소되면서 소규모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여했던 주민들은 자기 사진을 찾으며 흐뭇해 했습니다. 역시 자기 얼굴이 주인공이 되는게 중요합니다.



웃음 한 땀, 눈물 한 땀, 우리 인연이 완성되어 갑니다 - 바느질 모임

어린이 착한 경제 교실이 모집이 안되고 잠시 고민하던 차에 평소에 엄마들이 하고 싶었던 바느질 모임을 만들었다.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인데 바느질은 늘 마음에 꿈꾸고 있었던 바램이었나보다. 삼시간에 10명의 인원이 모여 들었다. 낮에 하는 모임이라 낮에 시간이 되는 분들만 오시게 되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저녁반도 운영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활동가들이 여력이 되지 못했다.

전체 7회 강의에서 말 인형 만들기, 컵 받침 만들기, 카드지갑, 휴대용 주머니 등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평소에 관심은 있었으나 거의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다들 마음만 앞섰지 시간 내에 따라 오지 못했다. 특히나 코바늘 할 때는 어찌나 힘들어 하시던지.. 그래도 한 땀 한 땀 작품을 만드는 정신으로 완성해 가는 쾌감이 있다. 인숙언니는 자신이 이걸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용을 하지 않고 액자를 만들어 걸어 놓으시겠다고 한다.

다들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예전에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바느질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술술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도 나오고 장애인 부모님이랑 살았던 이야기, 더 공부 하고 싶었으나 형편상 못했던 이야기 등 서로 짝한 마음을 나누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 한 땀, 위로 한 땀, 함께 하는 기쁨 한 땀, 좋은 인연 한 땀,
더울 때 땀 흘리며 만난 우리들은 이제 겨울이 되어도 계속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난롯가에 고구마 올려놓고 바느질 하는 기쁨..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4 커피와 인문학



에티오피아의 모든 아침은 집집마다 향기 그윽한 '분나 세레모니'(커피 의례)로 시작된다. 무쇠판에 커피콩을 볶고 나무구절에 빵아서 천천히 끓여내는 것은 젊은 어머니가 주재한다. 할머니는 볶은 보리를 나눠주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 번째 잔은 우애의 잔
두 번째 잔은 평화의 잔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

박노해 <분나 세레모니>

커피를 배우는 것과 안 배우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평소 달달한 커피믹스를 즐겨 마시는 마을의 여성들이 모여 커피 강좌를 듣게 되었다. 솔직히 커피 맛도 잘 모르겠고 가끔 마시는 원두도 특별히

맛과 향을 잘 구별하지 못하겠다. 쓰고 검고 달달하기도 한 커피.. 어느 샌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우리의 아침을 깨워주는 커피..

커피 강좌라 하면 처음엔 맛과 내리는 방법 등을 생각했는데 첫 시간은 나에게 커피란 무엇인가? 로 시작했다. 사람들은 커피 하면 심, 힐링, 각성, 힘, 에너지, 위안으로 표현한다. 실제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커피는 치료를 위한 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치지 않은 힘을 주는 신비의 명약 ^^

오늘은 선생님이 말라위 AAA, 이가체페 G1을 갓 볶아 오셨다. 둘 다 최상급 커피이다. 돌아가면서 향을 맡고.. 아 ~ 원래 커피란 이런 향이 나는구나 .. 처음 알게 되었다. 달달 하기도 하고 과일향이 살짝 돌기도

하고 묵직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향이 온 몸으로 퍼지고 정신을 깨운다. 시중에 파는 커피에서는 쉽게 맡아 볼 수 없는 향이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며 내려주시는 커피를 맛보며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 이 맛이 어떤지 이야기 하는 게 살짝 쑥스럽기도 하다.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익숙치 않고.. 미묘한 향과 맛에 대한 표현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다들 웃는다. 하지만 맛과 향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 싫지 않게 다가온다.

"이제 커피믹스를 끊어야겠다. 내가 마셨던 커피가 커피가 아니었구나!"

"커피는 단순히 각성을 위해 마시는 건줄 알았는데 우리 다도가 있듯이 커피에도 세레모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알게 되어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두 번째 시간에는 직접 드립을 해보며 서로 내린 커피를 맛보며 품평회를 해주었다. 내리는 방법만 다를 뿐인데 선생님이 내린 커피와 이렇게 맛이 차이가 난다니... 그래도 한번, 두 번, 세 번정도 시도하며 점점 커피 맛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좋은 향과 맛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 경험이에요!"

오늘도 마을 커뮤니티 따숨에서는 향기로운 커피향기가 피어오른다.

오늘 커피는 판타스틱이다. !!!





⑤ 마을이 사람을 키운다.

엄마는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다.

시골에서 무작정 올라와 다닥 다닥 붙은 성남의 고갯마루에 자리잡고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언니, 동생 하면서 친자매, 친형제 처럼 친하게 지냈다.

골목의 작은 평상에 앉아 푸성귀도 다듬고 서로 밥도 나눠 먹고

다녀올 곳이 있으면 아이들도 서로 맡겨 가면서..

아이들은 남의 집에서 놀아도 내 집에서 노는 것 마냥 편했고 이 집, 저 집에서 서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웠다.
학교 운동장에서 저녁 해가 기울도록 뛰어 놀고 온 힘을 다해 논 아이들은 밤이 되면 아홉시도 못되어 곯아
떨어지고 ^^

지난 몇 년간 마을 만들기에 함께 해 오면서 2014년 현재 마을 공동체,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든다는 건 어쩌면
판타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지만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람사이의
정과 끈끈함은 이제 지나간 구닥다리, 옛 유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누군가 나서서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 내고 그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시키는게 가능한 일
일까? 가능한 하더라도 지속시키는 건 가능할까?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의료 민영화, 사교육, 특목고, 대학 진학,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 많은 단어들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 사람 사이의
공동체를 말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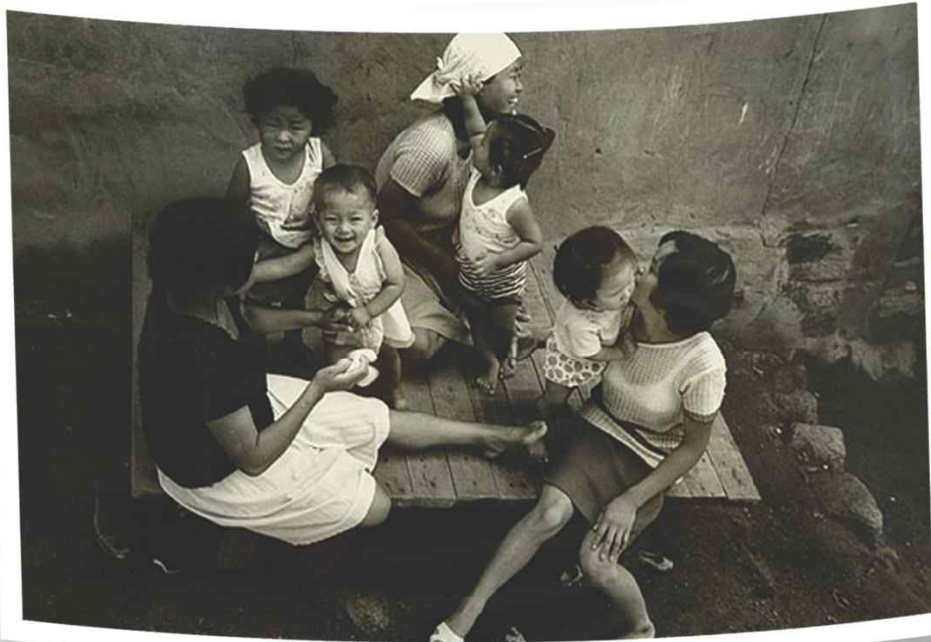
세상은 너무도 바빠졌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을만큼.

사람들을 믿는 것은 바보다.

내 이익을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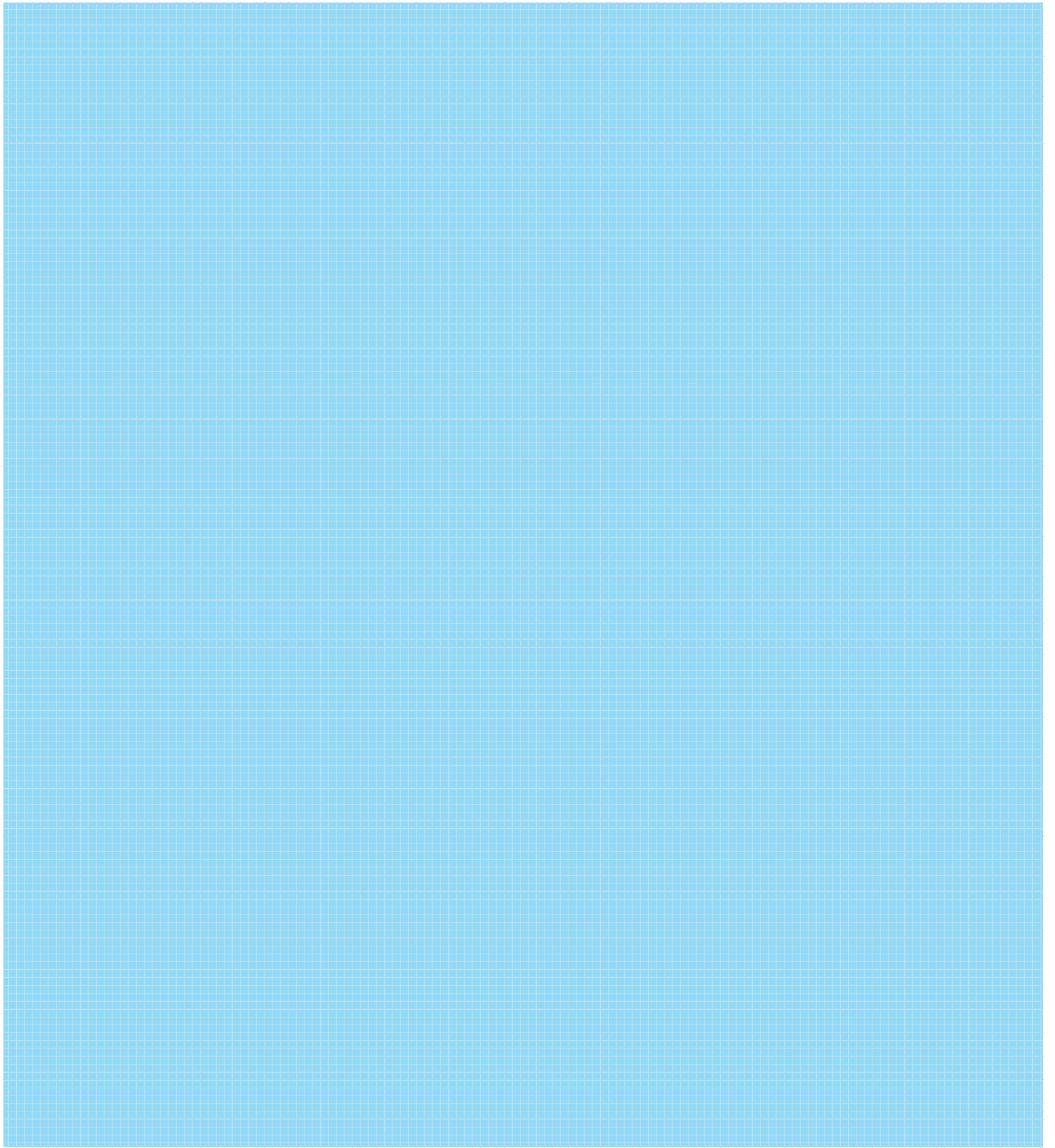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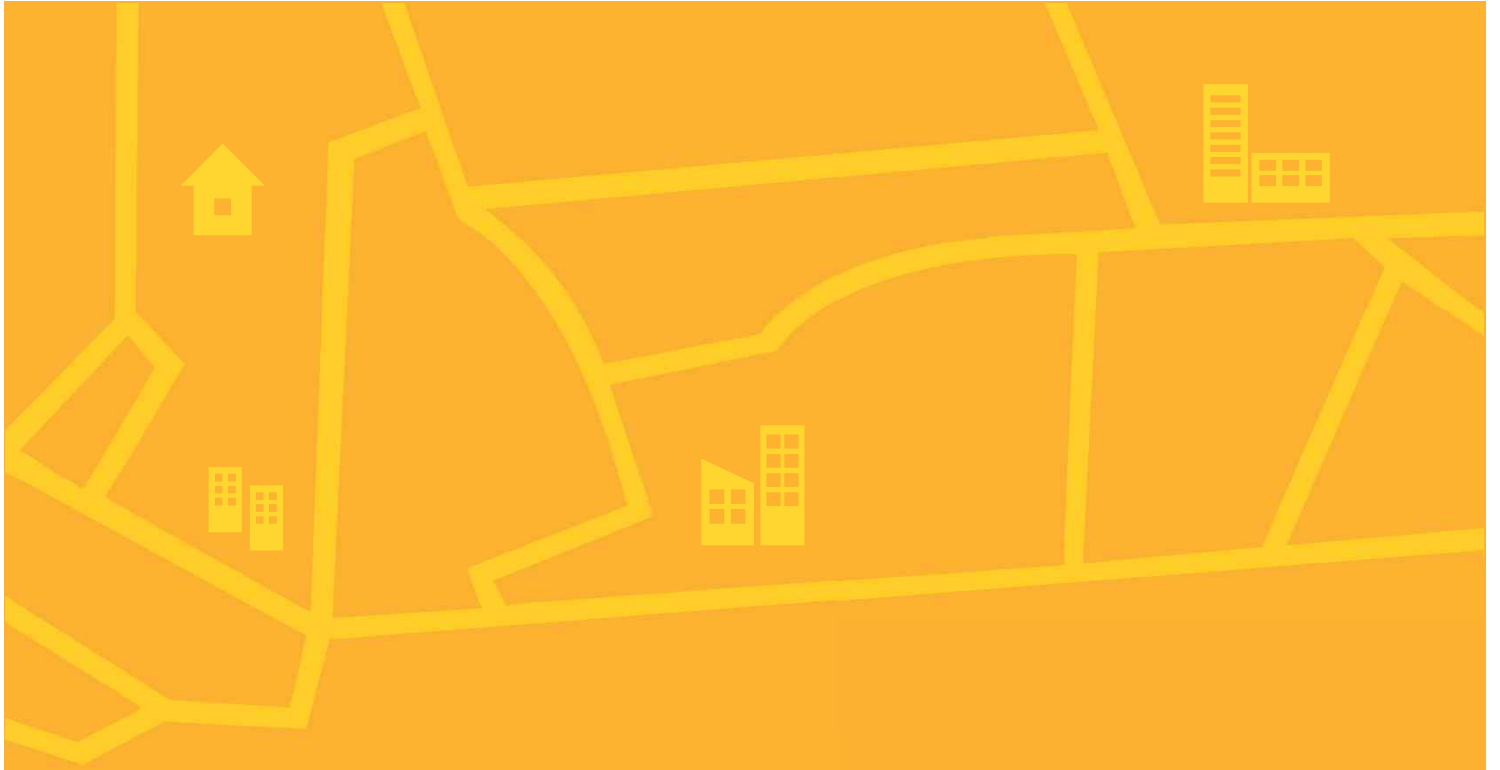
사람들은 마을 만들기 모임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과의 인연에 기쁨을 느꼈다.
맨날 주변 이야기에 머물렀던 모임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진입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 뭔가 새로운 희열감이 확실히 있다.

건강한 마을문화는 저절로 되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면 아직은 많이 양성하고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그 각각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모임들과 공동체의 민들레 흩씨가 되기를 기대해 보자.
2014년 우리는 태평동에 작디작은 민들레 한 송이 키웠다.







금광동

1. 우리동네 알아보기	108
2. 우리들의 프로그램	111
3. 꿈광리마을이야기	121
4. 감사의 글	125

우리동네 알아보기

① 꿈광리 마을학교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단대동(丹垞洞)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은행동이 논골, 금광리를 병합 단대리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으며, 1971년 7월 창곡을 병합하여 단대동으로 되었다. 단대동은 1976년 10월 단대 1,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단대2동은 1980년 9월 다시 단대 2,3동으로 분동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구제 실시에 따라 단대2동은 금광1동, 단대 3동은 금광 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금광동의 동명 유래는 금광리라는 자연취락의 이름을 살려서 동명으로 한 것이다. 금광리에는 고려말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킨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김약시(一若時)가 은거하여 살다 별세하였는데 그 자손이 벼슬에 오르고 집성촌을 이루어 세상사람들이 **광산 김씨네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금광리라 칭하였다.** 단대소핑 부근이 금광동의 입구로 양쪽산이 마주 접근 하여 병목처럼 지형이 이루어져 광통머리라 칭하기도 하였다. 김약시는 자손들에게 내가 살던 이 고을을 세상에 전하지 말라고 하였다 해서 일명 부전오동 (不傳吾洞) 이라고 하였다.





② 우리동네 알아보기



● 인원 및 가구

세대수 : 9,686세대 계 : 22,449명 / 남 : 11,519명 / 여 : 10,930명(2014.10.31.기준)

● 행정구역

면 적 : 0.72 km²(市の 0.51%)

통 반 : 29통 177반

● 기타시설

관공서 : 금광1동주민센터, 금광지구대, 금광1예비군동대

학교 초등학교 3개소(단남,금상,하원초교: 3,012명)

중학교 2개소(금광중,대원중:1,928명)

기 타 : 향군회관1개소, 복지회관1개소, 노인정 5개소,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있다.



③ 꿈광리마을 소개 및 센터 소개



금광동(꿈광리 마을)은 재개발추진지역이며 마을전체가 높은 언덕과 비탈진 고갯길에 대부분인 '문화공간이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 후에도 마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을만의 문화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며 언제나 해가 뜨는 마을을 함께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4 마을만들기를 시작 하면서..

금광1동복지회관의 제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 접하면서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시작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시작된 문화재단의 5주간 교육과 추진 위원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일년의 과정들을 뒤돌아 보면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느껴집니다. 워낙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초와 개념이 없던터라 동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재개발) 예정이어서 사업계획 구성단계에서부터 마을의 실정에 맞는 무형의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마을 학교’를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 하였으며 “이웃마을 탐방”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성장 사례를 간접체험 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휴식/체류 공간이 절대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한여름밤의 “별밤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재개발 갈등으로 인해 상처는 마음을 보듬고, 이웃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꿈광리 축제”를 계획하였으나 판교 참사로 취소되어 “마을 탐방”으로 대체한 부분은 욕의 티로 남습니다. 올해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도 적극 보완 반영하도록 하여 “꿈이 빛나는 마을” 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꿈광리 마을만들기”에 적극 협조, 후원해주신 성남문화재단, 금광1동주민센터, 금광1동복지회관, 금광1동주민자치 위원회 및 유관 단체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꿈광리 마을학교

- 일 시 : 7월 ~ 10월
- 장 소 : 금광1동 일대
- 참여자 : 금광1동 주민 누구나
- 내 용 : 7월 ~ 10월까지 1일, 2시간, 총 5회로 진행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동네 한 바퀴, 공공기관과 금광1동 골목길을 활용한 동네지도 만들기와 금광1동 자세히 들여다보기 및 이웃마을 탐방

추진내용	
7월	금광1동 꿈광리 주민추진위원회 및 주민 역량강화홍보
7월17일	금광1동 마을학교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금광1동주민센터 ◦ 내 용 : 금광1동의 역사 및 금광1동 마을만들기의 방향
7월29일	우리동네 한바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금광1동주민센터 ◦ 내 용 : 마을을 이해하고 돌아보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방법과 마을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찾는 방법 알아봄
8월12일	이웃마을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서울시 산새마을, 염리마을 ◦ 내 용 : 옆 마을 탐방을 통해 우리 마을을 진단하고 알아보며 마을만들기 진행과정을 알아봄
8월27일	마을만들기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금광1동주민센터 ◦ 내 용 : 성남문화재단 교육을 진행하셨던 강사님을 초빙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심화과정 알아보기



9월23일	<p>우리동네 한바퀴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금광1동 일대 내 용 : 금광1동만이 가지고 있는 골목길의 특성을 알아보고 / 우리만의 골목 알아보기 보존하고 싶은 장소 알아보기
10월1일	<p>우리동네 꿈광리 마을학교 수료식 및 평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금광1동주민센터 내 용 : 프로그램 평가 및 시상 및 수료





7월 17일

꿈광리마을의 첫시작!! 마을학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다시 보니 그때의 그 설레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월 29일

마을학교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광리(금광1동)에 대한 골목골목에 무엇이 있는지 꿈광리 만의 특색을 찾아 보는 시간이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고나니 또다른 시선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8월 12일

마을탐방 산새마을과 염리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보고 배울것이 많았습니다^^



8월 27일

성남문화재단에서 명강의를 해주셨던 김봉광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9월 23일

마지막 수업이었죠?? 막상 끝나니 너무 아쉽습니다..마을만들기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10월 1일

마을학교1기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2기, 3기 계속 지속될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꿈광리마을 파이팅!!!



2 별밤캠프

- 일 시 : 2014년 8월 30일(토) - 31(일) / 1박 2일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 대 상 : 금광1동 주민 누구나
- 주 최 : 꿈광리마을센터
- 협 력 : 금광1동 주민자치위원회, 금광1동복지회관, 성남문화재단, 금광1동주민센터
금광1동 유관단체(8개단체)
- 내 용 : '전세대가 함께하는' 마을안의 캠프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동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박 2일 동안
마을 안에서 이웃간 소통의 추억을 함께 나눴다.
- 참가가족 : 23가족(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반 필수)!!

회 의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많은 회의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기쁨과 추억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접수된 인원만 100명정도 되었다.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하나... 하지만 꿈광리 추진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거듭할수록 답에 가까워져 있었다.

준 비



그리고 설레임과 긴장속에 밤새 뒤척이며 아침에 눈을 떴다. 자!!! 지금부터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룻밤 캠프를 시작해 봅시다!!! 총 23가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텐트를 배부 받고 각 지정되어 있는곳으로 돌아가 텐트를 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열심히 하더라구요 ^^



문패 만들기



우리 꿈광리캠프에서는 4가지의 미션수행을 준비하였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수행은 가족끼리 모여 아기자기하고 예쁜
“우리집 문패만들기”

요리경연대회

본부석에서 강사선생님과 점수를 매겨 1,2등에게 상품을 주었다..

2번째 가족별 미션인 저녁식사 메뉴 “요리경연대회”.

가족별로 직접 저녁식사 중에 한가지를 본부석에 내고 심사를 진행 1등 가족에게 상품을 주었다.

아빠, 엄마, 아이들과 미니식탁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행복해 보였다. 다양한 메뉴를 보니 배에서도 밥달라고 아우성... 허기짐을 알려주었다. 요리경연대회 1등은 요리점시에 가장 많은 젓가락을 받았던 가족 중 4가정을 선정하여 상품을 전달하며 무사히 끝났다.



O.T



미션 3번째 “나는 꿈광리 스타”(가족별신청).

많은 분들이 참가신청을 했지만 시간관계상 10팀만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다들 어찌나 노래도 잘부르고 춤들도 잘 추는지..
아빠와함께 온가족이 노래와 안무를 준비하고 장기자랑과 오리엔테이션이 같이 진행 되어 시간이 눈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렸다. 모두
모두 하나가 되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광하며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다.



쓰레기 줄이기



다음날 아침 우리 모두는 기상 미션음악소리에 눈을 뗄고,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친 후 각자 대여받은 텐트와 물품들을 정리 반납하고 주변 정리도 깔끔히.. 4번째 미션인 “쓰레기 줄이기”.

1박2일동안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가족에게 1등 상품을 주었다. 행사를 마치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다”며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는 부탁의 한마디를 남기셨다.

첫 행사라 약간은 서툴고 어설프었지만 다시한번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니 내년에 어떤 캠프로 꾸며질 지 무척 기대가 된다.

우리모두에게 보람되고 무척소중한 1박 2일이었다.

꿈광리별밤캠프에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사랑해요.





마을탐방

- 일 시 : 11월 16일
- 장 소 : 인천 '동화마을'
- 참여대상 : 금광1동 주민 누구나
- 내 용 : 인천 '동화마을' 탐방을 하여 마을만들기 벤치마킹, 가족들과의 힐링시간, 가족과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등 가족과 가족간의 의사소통 및 꿈광리 마을의 자부심을 고취 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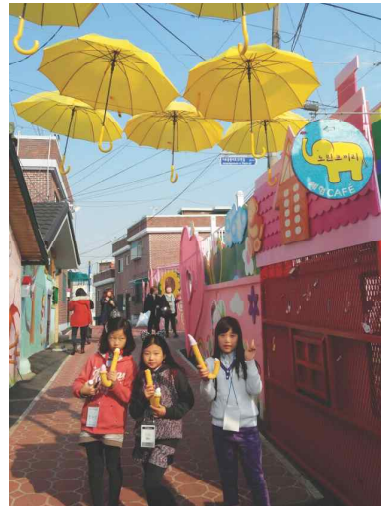
일 정	추진내용
‘꿈광리 마을 탐방’	
11월10일~16일	인천 ‘동화마을’ 탐방 홍보 및 접수
08:50 ~ 09:00	명단 확인 및 명찰 배부
09:00	출발
10:00	인천 ‘동화마을’도착
10:00 ~ 12:00	인천 ‘동화마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기
12:00 ~ 01:30	점심 식사
01:30 ~ 03:00	동화마을 및 월미도 가족과 함께 ‘추억만들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당 8장씩 가장 추억이 될만한 곳에 가서 사진찍어오기
03:00 ~ 03:10	명단 확인 출발
04:30	꿈광리 마을 도착



중원구 구청장님과



금광1동 동장님도
가는길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 일 시 : 7월 ~ 11월
- 장 소 : 금광1동 일대
- 참여대상 : 꿈광리마을(금광1동)을 기억하는 사람 누구나
- 내 용 : 금광1동은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의 꿈광리마을(금광1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공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자료수집을 하였다.



금광지구대



하원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금광중학교



대원중학교



금광1동복지회관



금광1동주민센터



제2경로당



항군회관



금상초등학교



별밤캠프를 다녀와서 - 신승애 -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6년째 금광1동에 거주하면서 우연찮게 2014년 7월에 '마을만들기'라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란 말 그대로 내가 사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불편했던 점들, 필요로 한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도 했고 '우리마을을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어 간다'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람되고 기억에 남았던 일은 지난 8월 '꿈광리별밤캠프'라는 온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고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와 서로 배려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이웃도 알아가면 정을 쌓는 좋은 만남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금광1동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활성화되어 마을발전과 주민들의 화합, 단결, 사랑의 정이 묻어나는 멋진 마을이 되기를 바라며, 이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후 센터장님과 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꿈광리마을 파이팅!!

인천 '동화마을' 다녀와서 - 박경희 -

박준후 위원장님, 센터장님과 꿈광리 마을만들기라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마을 탐방을 다녀 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인천 동화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탐방을 하면서 깜짝놀랐습니다. 벽화를 보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고향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예쁘고 골목길 마다 예쁜 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우리 금광1동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였고, 우리 금광1동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 걱정이 됩니다. 금광1동 마을을 인천 동화마을처럼까지는 못되더라도 길가에 예쁜 벽화나 꽃길과 아이들의 문화공간이 생긴다면 우리아이들도 좋아하고 범죄율도 낮아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금광1동은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 이은지 -

우리가 살고있는 동네가 곧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자는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남는게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사진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보기도 하죠. 영상을 담아 추후에 후손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도 어렸을적 사진을 보면 반갑고 기쁘고 웃기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이런점을 생각하면서 이 꿈광리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를 지울수 없듯이 우리마을도 길이길이 기억되지 않을까요? 2015년이 와도 해년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되어 우리동네의 역사로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마을학교 - 정현주 -

처음 마을학교를 시작을 한다고 해서 반신반의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을학교란 단어가 생소하다보니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다보니 우리동네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생각났던 것은 산새마을과 소금마을을 좁고 높은 곳의 동네들을 탐방하고 난후 작고 오래되어 보이는 동네의 건물들과 골목길을 소박하면서도 정겨워 보이는 벽화들로 채워놓고 주민들의 안전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쏟듯 보였습니다.. 우리 꿈광리 마을도 좀더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키울수 있는동네,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게 우리의 아이들의 꿈과희망을 가지고 마음껏뛰어놀수 있는곳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자란아이들이 부모가 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이야기



인천 동화마을 다녀와서

처음 차이나타운에 갔을 때 진짜 중국인 것처럼 화려하고 멋졌다.
 차이나타운 주변에는 진짜 중국 같았다.
 중국어도 많이 있고 중국 사람도 많고 중국 음식도 정말로 많이 있었다.
 점심때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완전 진짜로 “짱짱” 맛있었다.
 짜장면을 한그릇 뚝딱!!!
 그 다음에 동화마을에 갔는데 진짜로 동화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하기 때문이다.
 내가 동화속에 주인공이되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착각이 들정도이다..
 월미도를 갔을 때 바다가 너무 멋있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서 내마음도 땡 돌리는 느낌이었다.
 너무 너무 좋은 하루였다.
 내년에도 엄마한테 또 가자고 해야지

- 단남초등학교 3-1 최연우 -

별밤캠프, 동화마을 다녀와서

별밤캠프에서는 아빠, 엄마, 언니, 친구들 모두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가죽끼리 텐드에서 자는 것도 오랜만이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1박2일 모든 사람들과 한마은 같아서 더욱 즐거웠어요. 동화마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엘리스 같았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더욱 즐거웠어요. 우리 동네도
 동화마을처럼 꾸미면 마음이 많아 질 것 같아요. 꿈광리마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 금상초등학교 3-4 신바다 -



주민들의 이야기 - 꿈광리 마을 2015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2015년에는 꿈광리 축제를 많이 홍보해서 독거노인분들과 일반가정을 같이 한 팀을 만들어서 야영도하고 게임도 대화도 하면 좋겠어요 청소년들과 노년층과 교류도 될 것 같아요.

- 유지숙 -

다른 마을의 멋과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내년에도 아이들에게 배움의 도움이 되는 마을 탐방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명숙 -

작년에 진행되었던 꿈광리 마을 캠프가 2015년에도 활성화되어 아이들과 이웃과 함께 서로 알아가며 배려속에 즐거움을 함께하는 시간 또 기대해봅니다. 2015년에도 꿈광리 마을만들기 파이팅이요^^

- 신승애 -

2015년에도 초등, 중등 공부방을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 김가영 -

2015년에는 꿈광리 마을만들기에서 별밤캠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많은 일을 했지만 별밤캠프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 신바다 -

항상 주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정되었던 2014년 꿈광리 마을 축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물론 판교사고로 인하여 취소 되었지만 기대하고 있던 축제가 취소되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돈규 -

귀여운 딸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족과 2014년 마을 탐방에 참석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예쁜 추억을 만들다 보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2015년에도 이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대윤 -

2014년 꿈광리 마을만들기 별밤캠프에 참석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인원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2015년 꿈광리 마을 만들기 별밤캠프에는 더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경하 -



① 센터장님 Q&A



꿈광리 문화마을 만들기
센터장 박 준 후

Q.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점과 기억남는것은?

A. 문화재단 교육대상자 선정과 교육수급이 힘들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녹역은 주민들은 마을학교에 참여하도록
성득하기가 힘들었으며 판교 한동구 함자로 꿈광리 축제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을 캠프장으로 대체)

Q. 꿈광리 마을을 시작한 계기

A. 금강/동 복리란의 제안으로 리치워킹의 및 주민센터 그리고
동네간담회인 형의 구 마을 만들기 때때로는 응함하여 관내
학부모 때때까지 포함하는 꿈광리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Q. 꿈광리 마을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변화된 점은?

A. 마을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생기고, 주민들이 소중하고 화합하는
게기가 되었으며, 예전 단체 중심의 마을 활동이 일반 주민 (젊은층)
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Q. 앞으로의 계획

A. 정기적인 모임/교육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 때때로는 전파,
응답하도록 하여 마을 리더를 적극 양성하여 재계발 압력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다지며 이주 전까지
마을에 대한 추진과 협조를 간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겠다.



2 해뜨는 꿈광리 마을을 기대하며...



금광1동 동장 엄 갑 용

금광1동을 왜 해(해)뜨기를 등지고 떠났을까?

왜? 품은 비탈길과 경사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로 살아갈까?

왜! 왜! 왜! ...를 찾기보다는 이제는 당 예보 영종로 태어나 화장을 해서 예보 영종로 거둬내듯 금광1동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주면 스스로 찾아서 가꾸고 개선해감으로써 해뜨는 마을로 거듭나야 함을 서기가 아비가 한다. 특히나 지금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즈음에 우리마을에도 각계각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게 된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마을만들기, 거창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 없다.

내 집앞 내가 살고, 눈앞에 이웃과 함께 지우고, 쓰레기 마구 던버리고, 이웃과 어울리고 ...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지켜가며 정과 웃음이 있는 마을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행복마을 만들기」 아닐까 한다 이번 해 박포항 마을센터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마을만들기 사업 활동과정을 보면서 금광1동의 희망을 보았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극복해나갈 믿음이 기대하고 제안한다.

부디 금광1동을 활력있고 역동적이며 모든 주민들이 꿈의 희망을 갖고 사는, 언제나 해가 뜨는, 진정한 꿈광리 마을로 만들어 주길...

2014년 12월

금광1동장 엄 갑 용



③ 금광1동 꿈광리 마을을 꿈꾸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개선하려는 활동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부녀회나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 단체나 외부 전문가들이 주민조직을 지원하거나 연대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마을만들기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자치', '삶터자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양상의 주민운동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앞당겨 구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금광1동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야 할 세입자들이 힘을 모아, 마을 사업체를 만들고, 재개발 환경 속에서도 몇 년째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채롭게 전개하고 있는 서울 금호동 송학마을 사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차원을 넘어선 건강한 주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능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금광동에서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렵지만, 세대수를 늘려 개인부담을 줄이는 대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복지아파트 재건축 사례 또한 고층, 고밀화로 치달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광동 마을만들기 사업도 재개발 지역 마을 만들기 사례를 따라 성공하는 꿈광리가 되는 첫 발걸음이라 믿습니다.

꿈광리 마을만들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주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둘째, 주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시민단체 또는 외부 전문가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셋째, 행정의 대응방식 및 지원 역할 또한 마을만들기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의 본질은 사람, 이웃 입니다. 금광1동 복지회관도 구성원으로 이웃으로 꿈광리 마을만들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변혁기에 있는 금광1동, 꿈광리를 꿈꾸며 사람이 중심이 되어 답을 찾고자 합니다. 꿈광리에 금광1동복지회관도 함께 하겠습니다. 꿈광리마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금광1동 복지회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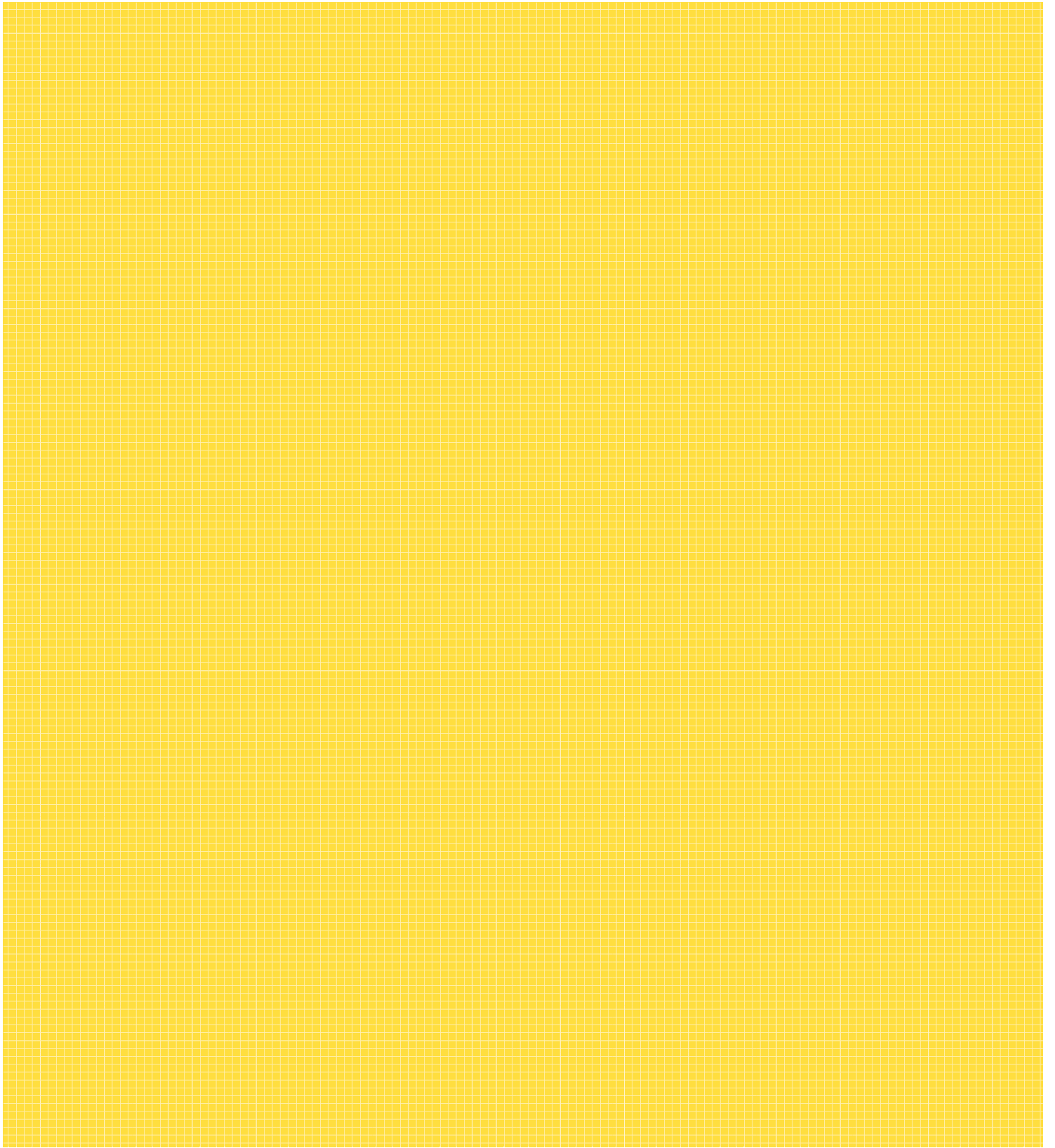
꿈광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저희 한사랑어린이집이 함께 함을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연계로 더 큰 꿈을 향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꿈광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꿈광리 마을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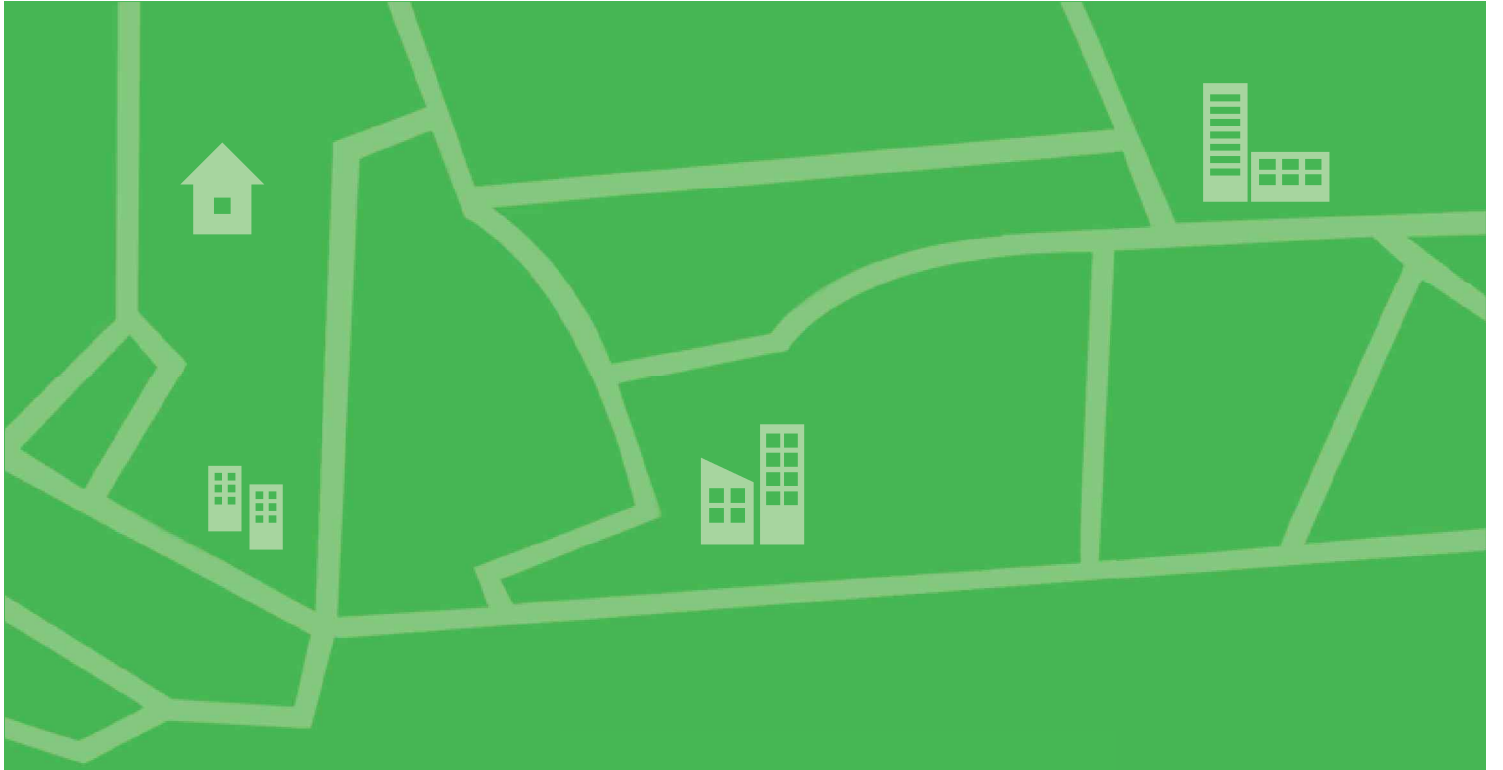
금광1동복지회관 내 한사랑어린이집 원장

안녕하세요? 금광1동복지회관 사회복지사이자 꿈광리 마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2014년 3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것 을 배웠고 주민분들과 여러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환상적 미래는 그냥 오는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르지 않는데 스스로 다가오는건 없지 않을까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금광1동복지회관과 꿈광리 마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실꺼죠?? 감사합니다~ 꿈광리, 금광1동복지회관 화이팅!!

금광1동복지회관 사회복지사 이 은 지







도촌동

1. 섬마을 알아보기	132
2. 마을 이야기	135
3. 섬마을 축제	141
4. 가족 문학기행	147
5. 감사의 글	150

섬마을 알아보기

① 도촌동 섬마을은 우리들의 제2의 고향

섬마을로 이사 온지 올해로 5년이 넘는다. 우연히 이사 오게 된 섬마을, 잠깐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다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고향이 되었다. 섬마을(도촌동)에 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살수록 좋은 곳이고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라 이야기 하신다.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용한 우리 마을만의 공간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나누기에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며, 온전한 주택가로서 유해환경이 없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자연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섬마을에 살다보며 어느새 자연과 동화되어 서두르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봄이면 조그만 개울 옆에서 챙 큰 모자를 쓰고 쭉을 캐는 어머니들이 많다.

그럼 며칠 후 그 중의 한 이웃이 쭉 버무리를 해서 도서관으로 가져와 나누기도 한다. 여름이면 섬마을 개울은 아이들의 물놀이장이 되고 조금 큰 아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다며 물통을 들고 다닌다. 가을엔 들꽃이 만개해 서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을 주위에 전한다. 겨울엔 여기저기서 눈썰매 타는 소리가 난다. 썰매가 없을 때는 박스를 깔고 하면 된다. 조금 큰 것은 동생도 태울 수가 있으니 금상첨화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더불어 놀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으니 섬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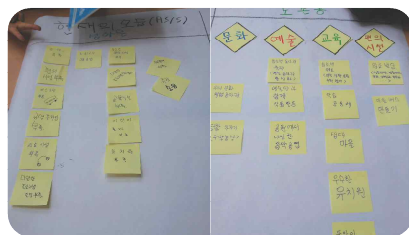
우리 섬마을에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고향으로 생각하는 주민들과 고향의 좋은 풍습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덕이 있는 마을이 되면 진정한 제 2의 고향이 될 것 같다. 섬마을에는 많은 거점공간이 있지만 섬마을 5단지 도서관은 마을의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머물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책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주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18명의 봉사자들이 돌아가며 개관하여 도서열람, 프로그램운영, 동아리활동, 지역 멘토 수업, 다양한 강연 등 도서관을 거점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0년 12월에 개관하여 마을 수업을 진행하며 봉사자를 모집하였고, 점차 인원이 늘어 지금은 18명의 봉사자가 도사모(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했다. 마을에서 문학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좀 더 주민에게 다양한 휴식과 충전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섬마을 5단지 도서관 봉사단은 섬마을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칭하고 새롭게 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섬마을 주민 전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② 마을커뮤니티 사업신청을 하며..

섬사모는 마을 전체를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서관을 거점으로 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던 것을 계기로 우리가 다루기 어려웠던 문화, 예술분야를 주민들과 함께 활용하여 즐기며 하나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우리문화로 하나되는 섬마을”이라는 주제를 정해 사업계획을 짜 보았다.



③ 마을커뮤니티 사업선정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이번 마을 사업은 주민을 주체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민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다. 마을 선정 전에 마을별 활동가 교육을 진행 하였으며 경연을 통해 세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져 마을 활동의 좋은 예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우리마을을 객관화하며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마을 전체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업계획서 짜는 요령과 PPT만드는 방법을 익히며 좀 더 전문적인 마을 만들기 과정을 익히게 되는 좋은 시간 이었다. 또한 함께 참여한 활동가들의 재능을 알게 되어 더욱 알찬 시간이 되었다.

오후 2시~6시에 진행되어 우리 주부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간이라 힘들기도 하였으나, 섬사모의 대표봉사자들이 모두 모여 다른 마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다. 임신 중 외출을 삼가 하라는 의사의 권고에도 참여해준 오혜상씨와 미국으로 여행가기 전 남은기간 4회를 충실히 참여해준 조영조씨, 하나하나 배우며 전문가처럼 PPT를 만들어준 김은지씨, 일정이 있어 참여가 힘들때도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며 힘을 실어준 양희정언니,

우리는 꼭 잘될거라며 잘 할 수 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준 송금희 언니, 꼼꼼히 정리하며 계획서를 정리해준 조보경씨까지 모두 함께 해서 즐겁게 교육을 임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누군가 와서 가족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 보고 마을 프로그램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았다. 왜 마을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마을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마을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섬사모는 좀 더 알차고 즐겁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 갔다.

“우리문화로 하나되는 섬마을”이라는 주제로 가족,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고,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우리문화라는 소재를 활용해 전래놀이를 배우고 가족간, 이웃간의 유대관계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유치부는 초등 저학년과 함께 전래놀이를 배우고 놀아보며 전통놀이인 사자탈춤을 유래익히기와 탈만들기, 사자무까지 익혀서 마을축제에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초등고학년과 중등부는 마을의 소식을 알리는 마을신문을 준비하며 마을의 기자단으로서 신문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신문의 구성을 우리마을 특성에 맞추어 정리하면서 좀 더 다양한 소식을 찾는 과정에 마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섬말 신문 기자단 수업을 준비했다. 주민 전체를 위해서는 마을의 즐거움인 축제를 준비하여 다양한 공연과 체험, 먹거리를 준비해 마을주민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계획하였다. 끝으로 마을의 많은 가족들이 문학이라는 매체로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성숙해지고, 여러 가족이 모여 좋은 이웃이 되고 이웃이 함께 머물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는 가족 문학기행을 준비하였다.





① 가족전래놀이를 통해 이웃과 친해지기

우리동네에서 어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할까?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은 늘 설레인다. 그중에서 아버님이 신청을 해주신 가족이 있었다. 귀여운 쌍둥이네 가족이었다. 현수막을 보고 좋은 가족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셨다는 말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듯 했다.

첫 수업에 이런 가족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으시라며 추가로 가족 문학기행도 대기로 신청해 주셨다.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가족프로그램을 원하고 계신 점에 다행이기도 하며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족문학기행은 광고 2일만에 마감 되어 더욱 놀라웠다.

가족전래놀이 수업은 토요일 가족들이 함께 전래

놀이를 익히며 가족간의 놀이문화를 만들고 이웃과 함께 놀이를 통해 교류하는 계기를 만드는 수업이다.

처음으로 신청한 지민이네부터 쌍둥이네까지 7가족이 신청해 주셨다. 나중에 수업이 시작된 후 참가를 원하는 가족이 있어서 한 가족이 추가 되었다. 매주 시간을 낸다는 것이 힘들다는 분도 계셨다. 첫 시간에는 북청사자와 태평사자의 차이점과 탈에 대해 영상으로 배우고 탈에 대한 의미도 알게 되었다.

배탈 났다는 표현을 비유로 들어주니 이해가 더 잘 되었다. 옛날에는 탈을 태우기도 했다고 한다. 정병인 선생님께서 가족들 바로 앞에서 통소를 불어주시자 우리는 그 소리에 금새 빠져들어 우리 소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피리처럼 부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쉽게 배울 것 처럼 가르쳐 달라고 달려들기도 한다.



그런데 복장은 벌써 사자공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우리는 미리 짐작을 하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전공이신 사자무를 우리 앞에서 추어 주셨다. 우리 앞으로 달려드는 사자를 보며 아이들은 진짜 사자를 보는 양 소리를 질러댔다. 그래도 사자는 물러서지 않고 아이 얼굴을 입으로 안아서 더욱 놀라게 했다.

다른가족에게 다가갈때는 웃음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되어 두렵고 장난스러움에 즐거움이 배가 된다. 한참동안 사자무가 진행되다 선생님은 사자를 벗어 보여 준다. 그리고 가족을 한팀씩 불러 직접 사자가 되어보는 기회를 준다. 소이네는 엄마가 사자 얼굴을 맡고 희권이, 소이 순으로 서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른쪽 왼쪽 정면을 반복한다. 사자얼굴 중 입에 손을 넣어 입의 모양을 조절하고 맨 뒤 사람은 오른손으로 꼬리를 잡아 흔들어 준다. 모두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움직여야 해서 조금만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 이걸 20~30분 정도 공연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다. 그것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나중에는 사자가 일어나 서기도 하니 얼마나 대단한 공연을 하시는 건가. 우리 가족들은 모두 한번씩 체험하며 사자 공연을 하였다.

처음 배워서 그정도면 모두 잘 한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 해본 가족들은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지는 힘든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직접 사자무를 해본 가족은 흔치 않을 것 같고 우리 전통을 보고 느끼는 것보다 직접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었다. 어느새 아이들은 일주일 중 가족이 함께 배우며 놀아보는 전래놀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토요일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놀아주는 규리어머니와 지민이어머니, 동생과 함께 오는 예석이어머니도 아이들과 즐기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채영이어머니는 바쁘셔서 참여는 힘드셨지만 끝까지 결석없이 참여한 예쁜 채영이, 나무를 잘 다루는 희권이와 소이네, 나중에 참여했지만 재미있게 따라준 지성이네, 어머니와 아버님이 함께해서 모범이 되어준 쌍둥이네, 부끄러워하지만 만들기에는 적극적인 선우네가 함께 주말을





숫대 체험



바람개비 체험



보내며 이웃아이들과 내아이가 구분없이 어우러져 마치 한가족이 모여 노는 듯하다.

함께 있을 때 가족구분을 할 수 없이 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마을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옆집 동생을 더 예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형제가 없어 고민하는 이웃에게 형제애가 생길 수 있는 계기는 이렇게 함께 어울려 가족들이 함께 노는 방법이 가장 좋은 듯 하다.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떨 때는 협동하고 어떨 때는 경쟁하여 게임하듯 진행되니 그때 그때의 놀이에 따라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듯 하다.

예를 들어 복주머니나 부채를 만들 때는 가족이 협동해서 만들어야 해서 어느새 다른 가족과 누가 더 예쁘고 빨리 만드는지 가족간의 경쟁이 되는것 같았고, 사자춤을 추거나 야외놀이를 할때는 한가족이 된 것 같이 즐겁게 뛰며 놀았다.

가족 전래놀이 팀의 가장기억에 남는 결과물은 숫대를 만든 것이다. 철기시대 삼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소도라는 신성한 곳이 있었는데 그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위해 새모양의 나뭇가지를 꽂았던 것을 숫대라고 한다. 우리 섬마을도 마을 주민들에게 액운을 막아주기 위해 가족별로 숫대 만들기를 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낫과 칼을 사용하여 나무를 다듬을 때는 너무 위험하지않나 생각되었는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무를 다루니 나름대로 안전하게 나무를 다루게 되었고 숫대를 완성 했을때는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 였다.

선우네 솟대가 가장 키가 컸으며 소이네와 지민이네 솟대는 새모양이 진짜 새처럼 생겨서 금새 날아갈 것만 같았다. 거기에 물통으로 만든 바람개비도 페인트칠을 하니 예쁘게 만들어 졌다. 연약해 보이는 쌍둥이 어머니는 사포질 할 때는 힘차게 문질러서 나무가 부드러워 지는걸 보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머니의 힘이 느껴졌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한번 해 보고 싶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길래 한 두 번 하게 하고 다음 가족프로그램 할 때 신청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섬마을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뿌듯했으며 가족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10강이 금새 지나갔다. 틈틈이 정병인선생님이 계신 솟대팀의 공연을 볼 기회가 있어서 가족들이 너무 즐거워 했으며 예술의 전당에서의 공연은 미리 초대권까지 챙겨 주셨다.

마지막수업으로 함께 바람떡을 만들어 먹고 내년의 더욱 좋은 가족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았다.



2 섬마을 아이들의 전래놀이



7~8세 13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전래놀이는 다양한 전래 놀이와 함께 북청사자 놀이를 함께 준비하며 사자탈과 사자무를 익히는 수업이다. 댄스를 배우는 아이들은 많아도 우리 문화를 알고 우리 사자무를 익히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자무는 사자들을 들고 사자처럼 허리를 구부려 사자춤을 추는 것이다. 어른들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오른쪽, 왼쪽 움직일때는 허리와 머리에 통증이 오는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 “하나, 둘, 셋, 넷” 어쩔 그리 진지한지

그중 여자어린이들은 사뭇 진지하다. 뒷줄의 남자어린이들은 어느새 장난끼가 생겨 친구들 꼬리잡는 장난을 하고 있다.



우리놀이인 제기도 만들고, 사자탈도 만들며 한지를 찢어 붙일때는 아이들 놀이처럼 하더니 완성품은 그럴싸 하다. 사자탈로 사자무를 연습하니 축제날 공연모습이 연상되고 아이들도 사뭇 진지하다. 아~~ 이렇게 사자무가 완성되는구나, 처음엔 놀이같고, 그후엔 운동같고, 마지막엔 춤추는 듯 하다. 우리 사자무는 기본체력을 기본으로 단순하지만 힘이 들어 가고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들어가는 전통무의 매력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다.

축제 때 멋진 모습 기대가 된다.





③ 섬말신문 기자단 마을신문 만들다.

섬마을의 똘똘이들이 다 모였다



섬마을의 똘똘이들이 다 모였다.

초등 5학년~중1학년까지 우리마을의 소식을 신문의 형태로 만들어 알리는 역할을 하는 섬말 기자단. 우선 신문이란 무엇이며 신문의 역할과 기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을 수업을 통해 익히고 섬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취재도 하고 인터뷰하며 원고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의원이신 정지영 의원님도 방문해 신문에 대한 이야기와 도서관의 활용법, 시의원으로서 하는 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들이 학생으로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여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알려 주셨다.

신문을 만들며 원고정리가 힘들긴 하지만 하나의 신문으로 나왔을 때의 기분은 아쉬움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있는 듯 하다.





① 우리문화로 하나되는 섬마을 축제

우리문화로 하나되는 섬마을의 최고로 행복한날 바로 마을축제날이다.

10월 18일 12시~18시 축제 일정을 정하고, 우리 섬사모회원은 2주 전부터 거의 매일 회의를 진행 하며 준비를 하였다. 일주일 전에는 먹거리 외 모든 준비물을 구비해 두었고 5일전부터 보드와 식자재 준비를 단계별로 진행하게 되었다.

보드의 글씨는 내가 보기에는 다 이쁜데 우리 회원들은 만족스럽지 않은가 보다. 글씨체만도 5 번째 바꾸고 제목 붙이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어디서 이런 디자인 감각이 생겼는지 모두 전문가 이다. 잘 모르는 회원들은 모두 멋지다고 해도 그 중 최고를 골라 진행한다. 축제 전날 밤12시까지 준비하는 완벽주의 회원 덕분에 섬사모와 도서관 알림보드, 사진들이 멋지게 전시될 수 있었다.

먹거리는 전날 미리 간을 보았는데 김치전에는 오징어와 같은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부침가루로 해야 맛이 있단다. 그리고 꼭 옥수수유로 부쳐야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 맛의 비결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섬사모.. 함께 해서 고맙고,즐거웠다. 전날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맛보기다. 김치전과 어묵, 떡볶이는 미리 조금 만들어 맛을 보았다. 다들 감탄하며 만족해 한다. 벌써 축제날이 상상이 간다.

오 마이 갓!!!

17일 7시 도서관으로 가는 택시안 수리취떡용 떡을 주문하고 보드작업하는 봉사들에게 달려가는 중 이런... 판교 야외공연중 환풍기 내려앉아 사고가 났다고 한다. 이런...

지금 이왕이 공원에는 무대와 천막 음향이 준비가 다 되었는데...

10월 18일 7시 도서관에서 매직으로 간단한 안내 문구를 적었다. 공연은 모두 취소하는 걸로... 사고자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한두 명 모이기 시작했다. 도촌복지관에서 10명의 봉사자와 함께 물건을 옮기고 이왕이 공원에 도착해 있는 하모니 봉사단아이들과 사진과 보드 전시를 하고 우리 섬사모 회원들은 부녀회 회원과 김치전, 추러스 떡볶이, 어묵, 슬러시, 꼬마김밥, 커피 등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각자 미리 팀을 정해 둔 것이 이렇게 진행에 도움이 될 줄이야...

보드작업 중 화폐를 만들자고 하여 미리 만든 화폐로 조보경씨가 은행창구를 맡았다.

일찍 오신 어르신과 아이들은 공연 언제하냐며 재촉이다. 이해가 힘든 어르신께는 일일이 설명하고 공연이 축소 되었음을 알렸다.

우리아이들의 사자무 공연과 벨리댄스, 무림 합기도 시범만 진행 되었다.

사자무아이들은 7세, 8세 아이들이 많았으며 10세아이들도 참여 하였다. 리허설도 제법인데 본 공연엔 직접 만든 사자탈까지 들고 하니 그럴싸 하다. 우리전통무와 인도의 벨리. 다문화 시대에 우리의 것을 지키며 다양한 문화를 익히는 우리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 더욱 뿌듯했다. 무림합기도 공연을 볼때는 우리 동네의 운동 좀 한다는 아이들은 모두 모인 듯 했다.

어썸 그리 훨훨 날아다니는지 우리아이들의 멋진 발차기와 점프에 모두 환호성이 저절로 나온다. 어느새 음악 속에 뛰어다니는 모습이 마무리되고 모두 아쉬워 하셔서 내년에 좋은 공연 준비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재미난 체험과 먹거리를 안내해 드렸다.

숫대만들기와 장승만들기, 수리취떡체험에는 도촌복지관 봉사자들이 체험을 도와주셨고, 캘리그래피 체험은 중원도서관 강사님이 하루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예전에 도서관에 인연이 되신 분들이 모두 하나씩 도와주시니 앞으로 더욱 주위 분들에게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현수련관 그늘빛 봉사단학생들은 페이스페인팅 봉사를 해주었다. 동광고의 미술부도 우리마을 도촌동 다리밑 벽화도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축제때 봉사도 해주니, 보고만 있어서 넘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줄이 길어도 짜증내지 않는다.

안양예고 문창과 아이들과 책표지 디자인어체험, 하모니 봉사단과 책표지 가방만들기에는 유치부아이들도 신이 나서 참여하게 되었다. 책표지 가방만들기 재료는 사계절출판사에서 선착순으로 20개 만들기 재료 지원을 보고 출판사에 전화하여 마을축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100개를 부탁하였더니 다른 책표지 그림과 함께 보내 주셨다.

무엇인가를 찾으려 할 때 우연히 계기가 되어 도와주니 넘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 사계절출판사에서 도와주니 한림출판사가 생각났다.



작가강연 때 인연이 된 한림출판사에 부탁하니 많지 않지만 홍보용 수첩과 노트, 책표지사진 등을 남은 수량만큼 보내주셨다. 마을 축제인 만큼 마을 주민에게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거기에다 작은 선물까지 준비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섬마을 축제가 되는 듯해서 하나하나 준비 될 때 느끼는 희열은 어디에서도 얻기 힘들 것 같다. 축제와 마을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힘들겠다며 안쓰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은 이번 축제에서처럼 내년에는 무얼할까?

내년엔 먹거리와 체험을 좀 더 많이 준비하자는 분들과

내년엔 쉬고 전 즐기기만 할꺼예요. 하기도 한다.

그분도 항상 말만 그렇게 하신다.

또 역할이 맡겨지면 누구보다 잘 하려고 노력하시니

열정은 어찌할 수 없나 보다.

섬사모회원의 자녀인 정예나학생은 풍선아트 봉사를 하겠다며 캘리그래피부스 옆에 의자를 두고 딱히 책상도 없이 열심히 칼이며 강아지, 꽃 등 아이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척척 만들어 낸다. 아직 초등5학년인데 거침없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둘 늘어간다.

우리 마을이 잘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듯 하다.

먹거리는 축제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점심을 여기에서 해결한다며 떡볶이며 어묵, 김치전, 꼬마김밥을 세트로 즐긴다. 기다리는 줄이 길어도 누구하나 불평하지 않는다. 편히 즐기고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걸로 준비하다 보니 메뉴가 김치전, 떡볶이, 어묵, 꼬마김밥, 츄러스, 슬러시, 커피, 식혜, 소보루빵이다. 좀 더 할까 했으나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힘들시거나 먹거리에만 치중될 것 같아 조율해 보았다. 그런데 맛이 대박이었다. 드시는 분마다 맛이 있다며 계속 재구매가 이루어진다.

결국 영조씨가 마트에 가서 어묵, 떡볶이떡, 음료, 식혜는 한번 더 장을 보았으나 금방 소진... 결국 시간이 5시를 넘어가 양해를 구하고 먹거리는 마무리를 했다.

준비한 봉사자들은 제대로 맛도 못 봤다며 흐뭇해 한다.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가능한 이유가 우리 마을 주민이 준비하니 서로 믿고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닐까한다. 우리 섬사모 봉사단의 힘은 마무리할 때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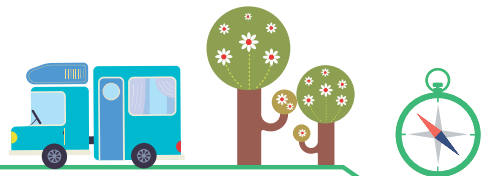
많이 느껴진다. 일사분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은 누가 먼저 일을 할까 겁을 내듯이 서로 먼저 하려 애를 쓴다. 그래서 하모니봉사자 학생들과 마무리하는데 30분정도에 모든 정리를 끝내고 도서관에 모였다. 집으로 들어가는 분은 약속이 있는 분 외에 거의 모두 도서관에 남아, 일단 봉사자들의 자녀에게 김밥을 먹이고 우리는 새롭게 떡볶이와 어묵 등 다시 한번 우리만의 축제시간을 갖는다.

모든 마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행복과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음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정리해 주는 시간이 필요 한 것이다. 먹거리 대박이야기, 수시로 콜라와 식혜를 사다 날른 이야기, 체험코너 대박이야기, 아이들의 공연을 못 봤다며 안타까워 하는 이야기, 이야기는 쉬지 않고 나온다. 다음엔 떡볶이를 배로 준비하자고, 츄러스가 대박이라며, 체험에 어른체험도 준비하자...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벌써 내년 축제준비는 끝났다.







① 가족문학 기행

10월 25일 김유정 문학촌으로 문학기행



10월 23일, 24일 4시~6시 김유정 문학에 대해 먼저 배우고 문학기행을 가기로 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동백꽃과 봄봄 책을 미리 읽고 김유정 작가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정씨가 여자인줄 알았다는 소이말에 영희씨도 나도 그렇다며 맞장구를 친다. 그럴만도 하지.. 초등 3학년이 김유정씨 문학을 접하기에는 너무 어린긴 하다. 이번 계기로 7세인 희권이도 동백꽃의 점순이를 알고 김유정씨의 얼굴과 작품을 알게 되었으니 이번 기행이야말로 우리동네에 문학이 숨쉬는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기다리던 10월 25일 8시 30분 도촌동 상가 농협앞에서 16가족 43명이 모였다. 항상 늦던 영조네도 이번에는 꼴등이 아니다. 진옥이네가 9시에 도착하면서 출발했다. 아침에 김밥까지 준비해 오느라 늦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해하기로 했다. 항상 함께 하는 사람들 아침 못 챙겼을 것 같아 함께 챙기니 미워할 수 없는 이웃이다.

춘천으로 출발하는 버스는 토요일이라 조금 지체되는 것 같아 말 못하는 내가 나선다. 김유정 문학에 대해 퀴즈를 내니 척척 정답을 맞춘다. 퀴즈왕은 선물을 주기로... 엄마, 아빠, 형들과 함께 가는 아이들은 신이났다. 아버님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 만으로도 편하다고 하시며 한숨 주무신다. 1차로 애니메이션박물관으로 갔다. 초등학교생이 많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구경하고 체험하느라 정신이 없다. 세계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체험과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경험하니 아이들은 새롭게 느끼는 듯 했다. 어느새 가족은 해체되고



아이들끼리 팀을 짜 신나게 뛰어다닌다.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새롭게 친구를 만들고 있는 듯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작년 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촌에 함께했던 예나아버님과 소이아버님, 윤재아버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분들과 덕현아버님과 우진아버님이 더 참여해 주셔서 5분의 아버님이 참여해 주셨다. 내년에도 아버님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 벌써 설레인다.

로봇 박물관까지 관람 후 봄봄 닭갈비에서 닭갈비와 봄봄막걸리를 조금 먹고 김유정문학촌 탐방을 하였다. 그 곳에는 김유정에 대해 책과 일대기를 정리해둔 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김유정 생가가 보존되어 있으며 우물가에는 봄봄의 주인공과 장인, 점순이가 함께 서서 점순이의 키를 재고 있는 모형이 있다. 우리아이들이 그 사이에 서니 소이와 선우는 점순이와 키가 같다. 봄봄을 읽었던 아이들은 그 장면이 어떤내용 인지 금방 알고 나의 표정을 살펴본다. 동백꽃에서 나와 점순이의 닭이 서로 싸움을 하는 모형에서는 닭을 타고 서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봄과 동백꽃의 내용을 모두 아는 도춘 가족들은 쉽고 재미있게 김유정 문학촌을 즐기고 김유정역으로 걸어 내려갔다.



김유정역은 다양한 대형책으로 꾸며져 있어서 우리와 넘 잘어울리는 듯 했다. 5시 예약해둔 레일바이크를 가족별로 타기도하고 아이들끼리 타기도 하고 자유롭게 타고 터널마다 테마가 달라서 어느 곳은 아름다운 클래식이, 어느 곳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며 밤무대를 느끼게 한다. 동시에 함성을 지르며 함께 즐기며 앞팀을 가볍게 부딪힌다. 안전 설명에 사정거리를 두라고 하였으나 앞 뒤가 모두 가족이고 친구이다 보니 원칙보다 즐거움이 앞선다. 부딪히고 하는말 “우리가 한게 아니야 뒤의 팀이 먼저 부딪힌거야 미안” 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머금여 진다. 1시간이 넘게 가다보니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다. 화장실도 가고 매점에서 떡볶이와 소세지도 사서 서로 나눈다. 누가 산지도 모르고 감사해 하며 먹거리를 나누고 미리 준비한 음료를 나누어 마시고 다시 즐겁게 출발. 이제 더욱 신이 나서 페달을 돌리는 아이들 어른들은 굳이 돌릴 필요가 없다. 너무 웃어서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다. 강촌역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다시 올라 가자고 한다. 우리마음도 그렇지만 벌써 7시를 넘었다. 아이들을 달래고 기다리는 버스에 탑승했다. 강촌역에서 교통봉사해 주시는 분이 섬마을 도서관하고 도촌동 팀을 부른다. 버스를 타며 도촌식구들은 우리가 남해 섬에서 온줄 알거야 하며 웃는다. 이렇게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하다.

어느새 잠이 든 도촌 식구들...9시 도촌동에 도착했다. 우리 저녁은 누가 챙기나? 방법은 하나. 도촌 도서관에 모두 모여 저녁이 될 만한 식사를 주문하고 장을 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김밥과 피자, 치킨으로 어른은 피자, 치킨과 맥주? 이렇게 마무리하며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하지 못한 아바님들이 함께 저녁에 자리하고 다녀온 가족을 부러워 한다. 이런 소박한 즐거움이 있어 마을은 살만하지 않을까..우리는 정리하니 11시다. 후문으로 아바님들은 새벽 1시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하실 이야기가 많았나보다.





성남문화재단과 마을커뮤니티 사업을 마치며..

6월부터 10월 까지 급하게 달려왔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을주인을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이 결정되자 홍보지를 만들어 많은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도촌초등학교, 도촌중학교, 주민센터, 단지별 게시판, 버스정류장까지 돌리며 이리 저리 뛰어다니던 것이 생각난다. 상가에서도 친절히 홍보지를 붙여주셔서 감사했던 기억도 난다. 우리가 직접 만든 마을 프로그램이기에 주민의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던 것 같다. 시작한지 한 달도 안되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다. 문학기행과 마을축제때는 내년에라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처음에 반신반의 했던 생각이 부질없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준비를 하는 주민과 즐기는 주민이 구분 없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마을 프로그램이었으면 했는데 이번 사업은 그 부분에서 성공인 듯하다.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챙기는 주민을 보았고, 스스로 지치지 않기 위해 즐기며 함께 하는 섬마을 주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진정한 이웃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 섬마을은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함께 즐기며 함께 생각하는 마을 프로그램은 이웃간의 유대관계를 높이고 질적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주민의 필수조건이 된 것 같다. 마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분들이 행복했고, 그 행복을 나누며 마을에 긍정에너지를 갖게 도와준 성남문화재단 마을지원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마을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이 모두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섬마을 주민은 계속 노력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조금이라도 이웃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을 익혔기 때문이다. 2015년도 우리 마을 긍정에너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